

심층진단

정치 왜 후퇴만 하는가

민주주의 제도만 발전

한 때 ‘정치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경제발전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말은 정치학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인구에 많이 회자되었다. 그 때 ‘정치발전’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지칭했다. 그리고 지난 세기 80년대 말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이후 20 수년,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이 땅에 정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정치발전’은 된 것인가. ‘정치발전’이라는 말이 이미 낡고 생경(生硬)한 용어가 되었지만, 돌이켜서 그 말을 되새길 때 정말 우리는 ‘정치발전’한 것인가. 이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드물다면, 왜 그러한가. 정치제도적으로는 발전했는데, 정치 행태적(行態的)으로 전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치 제도적으로 분명히 우리 정치는 발전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네개의 절차(보통 평등 직접 비밀)에 맞게 대표자들을 임기에 맞춰 어김없이 선출한다. 때로 부정 시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때문에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의회에서의 법안심의 의사결정도 국민적 기대수준에는 한없이 미흡하지만 그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라고 까지는 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어 나온 대표자 - 정치인들의 행태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언어, 그들의 의식이 국민의 대표자라 이름만한 수준에 올라있는가. 국민의 눈높이, 지식의 높이, 시대감지(感知)의 높이만큼 되어 있는가. 그들의 행동거지가 모범은 아니라 해도 지탄은 받지 않고, 그들의 언어 사용이 순화되어 있지는 않다 해도 비난의 대상은 아니고, 그들의 사고와 의식이 고상하지는 않더라도 상식적 이해의 수준은 되는가 이다.

‘덜 나쁜 사람’ 뽑는 정치

흔히들 그 나라 국민의 수준만큼 대표자도 선출되어 나온다고 말한다. 그러면 대표자 - 정치인 수준이 낮으면 국민수준도 낮은가. 국민수준이 높으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 - 정치인의 수준도 높은가. 국민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정치인 또한 그러한가. 얼핏 보면 근사치가 있어 보이지만, 깊이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이다.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국민은 국민 중에서 최고의 사람 혹은 국민 수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사람, 그 자청자(自請者)들 중에서도 보다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자청자들 중에서도 보다 ‘나은 사람’ 말하자면 평소 존경받고 신뢰가 두터운 사람, 능력이 남달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눈을 닦고 살펴도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 때가 되면 예외 없이 누구나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정치발전’은 된 것인가. ‘정치발전’이라는 말이 이미 낡고 생경(生硬)한 용어가 되었지만, 돌이켜서 그 말을 되새길 때 정말 우리는 ‘정치발전’한 것인가. 이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이 드물다면, 왜 그러한가. 정치제도적으로는 발전했는데, 정치 행태적(行態的)으로 전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별기고



송복

·본회 회우
·연세대 명예교수

되었다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발전’이 아직도 못 되었다는 이유이다. 한 때 너무나 절실히 들렸던 어느 최고 기업인의 말, ‘경제는 2등 정치는 4등’이라는 말도, 그래서 국민의 심금을 울린 것이다.

최악의 행태 자행

거기에 우리는 2천년대를 넘어서면서 정치인들의 지나친 문화적응 지체현상(文化適應遲滯現象)을 보고 있다. 우리 정치사상 최악의 정치행태가 이 기간 중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恣行)되고 있음을 매일 매일 경험한다. 그 문화지체현상은 두가지다.

정치인수준 ‘보통사람’ 보다 낮아 소통도구 발전 못따라 막말 남발

이유는 간단하다. 대표자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온 사람은 으레 선거를 정치공학(工學的)으로 이용한다. 표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경쟁자에 대해서 모함하고 음모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고, 없는 강에 다리도 놓아주겠다고 사기치는 포폴리즘 선거운동이다. 최고의 사람, 정직하고 투명하고 인격이 바로 된 사람이 내가 대표자가 되겠소 하고 나오기에는 이미 나온 자청자들의 선거판이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대중영합적이다. 그래서 대표자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온 그 ‘자청자’들의 절대 다수는 국민의 중간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만일 그 ‘자청자’들이 국민 중에서 보통으로 보는 ‘보통사람’의 상식, ‘보통사람’의 양식, ‘보통사람’의 지식과 정직성만 가져도 그 나라 민주주의는 정치 행태적으로 성공한다. 그러나 보통국민이 볼 때 그런 보통의 사람이 자청해서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오는 예가 너무 드물기에 국민은 할 수 없이 나쁜 사람 중에서도 ‘덜 나쁜 사람’, 수준 미달 중에서도 ‘덜 미달된 사람’을 울며 겨자 먹기로 뽑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정치적으로 선진국이 못

하나는 문화 소통도구(疏通道具)와 문화 소통콘텐츠 간의 지나친 갭에서 오는 문화 부적응현상이다. 다른 하나는 개방된 사회문화와 폐쇄된 가족문화간의 지나친 괴리에서 오는 문화부적응현상이다.

문화적응지체(遲滯·lag)라는 말은 소통도구의 발달은 너무 앞서 가 있는데 그 도구에 실리는 메시지·콘텐츠는 너무 뒤쳐져 있다는 말이다. 사회문화의 개방 속도 또한 너무 빠르는데 가족문화는 반대로 너무 뒤쳐져서, 오히려 닫혀 있다는 말이다. 오늘 한국 정치인들이 이 두 지체 현상을 ‘함께’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정치행태가 아득히 뒤쳐져 버렸다는 결론이다.

첫째로 오늘날의 소통도구는 인터넷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최첨단이다. 그 최첨단 도구에 실리는 콘텐츠는 어떠한가.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그 첨단도구에 실려 보내는가. 그들의 콘텐츠는 빈한하기 한량없다. 빈한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이다. 도구는 첨단인데 거기에 맞는 그리고 거기 실리는 콘텐츠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는 명료하다. 언어 야만주의, 언어 폭력주의 그리고 언어의 저질성이다. 비어(卑語)가 판을 치고 선동과 감정의 언어만 난무한다. ‘꼼수’ ‘닥치고’라는 예전에

는 상상할 수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이 일상화된다. 이성(理性)은 없어지고 예의는 황폐되고 상대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이면 뭐든 동원된다.

지난번 선거에서 들던, 타도 점령 복수라는 전형적 좌파용어가 거리낌 없이 쓰인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되는 막말을 예사로 토해낸다. 일찍이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저질스럽고 야만스러운 정치행태를 경험한 일이 있는가. 그럼에도 그들은 양식은커녕 더 수위 높은 ‘저질’만 찾아서 광분한다.

둘째로 오늘날 우리의 사회문화는 개방화와 함께 다원화되고 다양화되었다. 모두가 열리고, 모두가 주체·옴이 되고, 모두가 다름이 되었다. 이제 문화의 높낮이는 없다. 어떤 문화는 높은 문화이고 어떤 문화는 낮은 문화라는 문화의 존(尊)비(卑)는 없다. 그것은 옛이야기다. 모든 문화는 가치있는 문화이고 정체성이 있는 문화다. 상이한 것 만큼 특별한 문화이고 존중되는 문화다. 사회는 그렇게 바뀌었다. 우리는 그 바뀐 속에서 나날을 호흡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존·비를 내세우는 가정이 있다. 아버지는 높고 어머니는 낮다. 역시 아들이고 딸은 차서(次序)다. 우리는 양반이고 선대는 줄줄이 벼슬을 했다. 이는 지금의 사회문화와는 아득히 동떨어진 폐쇄적 가족행태다. 이런 가족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허위의식이 발달한다. 아득히 앞서간 개방문화와 아득히 뒤쳐져 있는 폐쇄문화 속에 사는, 그 괴리 그 간격 만큼 거짓된 의식, 금가고 깨어지고 허풍떠는 분열증이 의식의 저변을 지배한다.

이 사람들이 쓰는 말들은 예외 없이 막말이다. 남을 비하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일상으로 쓴다. 그런 가정의 아버지에게 들은 말은 으레 ‘그놈’이고 ‘그년’이다.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에게도 보통으로 비하해서 ‘그년’이라고 한다. 어느 국회의원이 무지무례의 극치로 함부로 토해낸 ‘그년’이라는 저질어는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에게 한 말이 잠재화되어서 나온 말이다. ‘그년’이라는 의식의 잠재화, 이는 사회조사에서 한 건도 예외가 없다.

우리 정치인들의 7‘정치행태’가 그처럼 후진적이고 저질스러워진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기본적으로 이 두 이유에서다. 원천적으로 수준 이하 사람들의 집합체인데다, 문화적으로 2개의 지체 현상을 겪음으로써 그 저질행태는 중첩적으로 가속화 된 것이다. [K]

경제성장 불씨 살릴 대책 시급하다

경제가 걱정이다. 모든 경제지표가 뒷걸음질치면서 한국 경제가 일본의 20년 장기불황을 닮아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서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내수침체 속에서도 수출 호조로 선방해 왔다. 양극화와 경제체질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여 우등국가로 평가 받았다.

청년실업이 문제이긴 해도 전체적인 저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도 그렇다. 물가도 기복은 있었지만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울들어 수출 감소세와 함께 민간소비, 기업의 설비투자가 모두 저조해 누가 보더라도 경제의 하강국면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수출이 부진하니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는 잘해야 연 3%를 달성할 전망이라고 한국은행이 최근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이드에선 3%도 어렵고 2%선을 내다본다. 이명박(MB) 정부 들어 2008년과 20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2.3%와 0.3%, 2010년 6.2%, 작년에 3.6% 각각 성장했다. 5년간 연평균 3%대 성장으로 수치상 역대 정권 중 최저로 기록될 전망이다.

MB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7·4·7’ 정책(연평균 7% 성장에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위 경제대국 실현)을 무색케 하는 성적이다. 그나마 성장정책을 펴고 위기 대처를 잘해 OECD국가 중 상위 성장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성장 일변도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냐, 성장이나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한다. 논쟁거리도 되지 못하는 논쟁을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일자리나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선순환을 위해선 성장이 필수다.

저성장과 경제 적신호의 대외 요인은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더해 준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 유로존의 재정위기, 중국 등 신흥국들의 경기둔화가 겹쳐 아주 차디찬 바람이 나라 밖에서 불어오는데 이 찬바람을 어떻게 이겨내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세종대 석좌교수

대선 선심공약 재정 감당 안돼 ‘경제 민주화’로 기업위축 우려

느냐 하는 문제다.

대책 마련은커녕 대선공약 남발로 흥청망청 돈 쓸 궁리들만 하니, 이것이 더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미국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이미 작년부터 2013년에 세계 경제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지금까지 몇 차례 반복 경고를 한 바 있다. 루비니 교수 말고도 세계경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1929년 대공황 이상의 변고를 몰고 올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다.

어두운 경제전망 못지 않게 더욱 우려되는 건 경제 적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오히려 선심공약 남발에 여념이 없다는 사실이다. 경제현안 타개에 진력해도 어려운 판에 너무나 안이한 대처 양상이 걱정스럽다. 대외요인에 취약한 한국 경제가 어느 나라보다 큰 타격을 받

하다고 본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항상 고통받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정치권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서도 꺼져가는 성장 불씨를 살리기 위한 공약 제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지만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복지공약대로라면 엄청난 재정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공약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재정난으로 차질을 빚고 있지 않은가. 실시하더라도 국가채무 급증과 국민조세부담률 상승으로 경제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내수침체와 가계부채,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경제체질 개선 문제 등 얹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1천조를 넘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와 부동산 침체가 맞물려 가계의 연체

사태를 몰고 오고 금융권이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하고 수출은 물론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 조직과 기능이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에 적극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나 기업인 범죄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한다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하던 정신으로 돌아가 모두가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나쁜 일 말고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 투자를 고취시키고 소비를 늘리고 노사 화합과 단결로 생산성을 높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가야 한다. 경제민주화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기업할 수 있는 여건 확립이 더욱 절실하다.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국민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한 추세다. 이에 대한 국민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국민 혈세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경제는 국력의 원천이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고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보이는 것도 경제가 뒷받침 했기 때문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북한집단에 넘어가지 않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를 양적 질적으로 계속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치권이나 사회 일각에서 전혀 터무니 없는 종북언동을 일삼는 사람들도 경제력 향상에 반비례해 소멸하리라고 확신한다. [국문]

‘종북’ 방치 대통령 직무유기 아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지난 달 8월 1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벌인 이른바 ‘8·15 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는 그것이 과연 지각 있는 사람들의 행태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광란극이었다. 퀴즈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사회자는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는 ‘주석’과 ‘위원장’ 등 공식직함을 깎듯이 붙이고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원수(怨讐)’라는 치욕적인 언사로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 그런가하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후보에게는 ‘공천현금 받아 처먹은 년’이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쌍소리를 써가며 폄하했다. 민주노총의 이른바 골든 벨 행사에 출제된 문제 중엔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온 날짜는?’ ‘2008년부터 미국 놈들이 해온 전쟁연습은?’ ‘북한과 교역하는 걸 원천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협정은?’ 같은 것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합법적인 민주선거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라는 최악의 표현으로 매도한 것은 민주노총의 정체가 갈수록 반미·종북 성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반국가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북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답습한 이적단체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보며 문제를 출



정운중

·본회 상임이사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제한 백금열은 광주광역시 모 중학 전교조 교사다. 이들이 낸 문제는 민주노총의 소위 통일교과서라는 책에서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은 특히 북한 3대 세습과 핵개발을 사실상 정당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미 이적교재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몰래 북한에 들어가 104일간이나 체류하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국상(김정일 사망을 뜻함)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운운의 글을 남긴 노수희

는 바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다. 범민련은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지하는가하면 광우병 파동, 제주 해군기지 반대,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반대 등 반국가·반안보 활동을 주도적으로 벌여오다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 난지 오래다. 이런 이적단체가 아직도 존재하다니 말이 되는가.

이처럼 종북 이적단체가 버젓이 발호하게 된 것은 대통령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법대로 엄단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공안당국이 맡은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탓이다. 사실 국가원수 모독이나 이적행위는 현행 법으로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

3면으로 이어집니다.

독도문제 대처 감정 초월해야 한다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의 영원한 아킬레스건이다.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 했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자국의 영토를 방문한 아주 당연한 일이었지만 곧바로 국제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로 현단위에서 시비를 걸었던 일본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독도 시비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8월 24일 일본 중의원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하고 한국은 독도의 불법 점거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독도 분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본 총리의 항의 서한 발송, 한국 정부의 항의 서한 반송 등 한일 양국의 외교 분쟁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한일 양국 국민들과 정부간 대립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하여 양국 언론은 이미 상대방을 멀리 비하하는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쉬운 문제도 있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도 있다. 아주 쉬운 문제는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이며, 일본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또한 아주 쉬운 문제다. 독도는 한국 땅이니까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피고와 원고가 함께 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어야만 재판이 성립되는 곳이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만이다.

또 하나 독도와 관련해서 아주 쉬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 아주 쉬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독도가 한국 영토인 이유는 역사책에 그렇다고 쓰여 있고, 세계가 인정하고, 국제법적으로 우리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독도가 한국 영토인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를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 우리 땅인 것이다.

역사책에 의하면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연해주는 수 천 년 동안 중국 땅이었다. 그러나 연해주는 지금 러시아 땅이다. 역사책에 의하면 만주는 수 백 년 동안 우리 땅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만주는 지금 중국 땅이다. 연해주가 러시아 땅인 이유는 러시아가 지금 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만주가 중국 땅인 이유는 중국의 주권이 만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연해주를 빼앗는 과정에 북경조약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마치 한일 간

의 을사조약과 같은 강압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국제 정치의 역사를 잠깐만 읽어봐도 영토와 국경은 영구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일본은 수 십 년 동안 있지도 않은 독도문제로 시비를 걸었는데 금

특별기고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권행사국 영토’ 명백한 일 ‘분쟁지’ 인상 심을 필요 없어



지난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순시했다.

년 8월, 일본의 독도문제 부풀리기는 마치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이 독도 문제로 시비를 걸 때 말려 들어갔다. 정치가들은 독도문제를 인기 관리를 위해 사용했다. 국민들도 애국적인 일이라는 했지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큰 글자로 쓴 미국 고속도로의 광고판은 독도가 국제 분쟁중인 섬이라는 인식을 미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었다. 일본이 제소하는 국제사법 재판을 한국이 무시할 경우, 세계 여론은 한국이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며 더욱 이상하게 생

각 할 지도 모를 지경에 도달했다.

한국 국민의 다수는 독도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는 필요 없고 단호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문제의 종점이 폭력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엄연한 현실에 대비해야 한다. 독도 전쟁은 한일 간 해

적 태세를 취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을 ‘정상국가’화 하려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일본은 2차 대전의 전범국으로 패전이후 지금까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명예를 쓰고 살았다. 현대 국제정치 체제 속에 존재하는 국가가 전쟁을 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정상국가 아니다. 일본이 말하는 ‘보통국가’란 다른 말로 하면 정식 군대를 가지고, 전쟁도 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중국의 급부상을 제어 하겠다고 나선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싫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은 미국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며 중국은 일본의 도전에 국력을 분산 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해석하기 어려운 또 다른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문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과 가장 양호한 관계를 맺은 대통령으로 인식 되었다.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일본과의 양호한 관계는 대단히 잘 한 일이었다.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제체제에 대해 불만에 가득 찬 강대국 중국에 대처 하는데 있어 양호한 한일 관계는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반대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친일파로 매도당해 왔다. 비공식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한 인터넷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행동에 대해 90%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친일 쪽발이 대통령’의 누명을 단숨에 벗은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2012년 8월 대통령과 여당은 거꾸로 반대자들에 의해 ‘친일정권’이라는 대대적인 정치 공세에 시달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동북아 4대 강국은 문자 그대로 세계의 4강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년 동안 중국에 예속되어 살았고, 1910년 이후 30여년간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다. 해방 후에는 분단과 전쟁을 치렀다. 역사적 반감을 떨치기 어렵지만 전략적 사고는 감정을 초월해야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절대로 피해야 할 일은 중국, 일본을 동시에 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럴 경우 통일은 불가능해지며 국가안보의 안전판인 한미 동맹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과 정치가들의 전략적 사고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국문]

2면에서 이어집니다.

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현재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위헌 정당에 대한 해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회단체도 그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유가 보장된다. 국체를 어지럽게 하고 민주주의의 그 자체

를 파괴하려는 내부의 적(敵)들에게까지 법이 관용을 베풀어서는 국가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국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로 매도해도 무사하다면 그게 어디 제대로 된 나라인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히 묻고 싶다. 종북 이적단체가 공공연히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데도 임기를 채울 때

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건지, 선거 때 절대다수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믿고 표를 몰아준 진의가 무엇인지를 늦었지만 깨닫고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가를 보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국법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에 속한

다.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 집단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녕과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통령과 입법 기관인 국회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늦었지만 반국가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국문]

박근혜 후보 첫 女대통령 되려면...

정당사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유력 정당에서 최초로 여성 대통령 후보가 탄생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대선후보가 된 첫 사례도 생겼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애기다. 헌정사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12월 19일 대선결과를 지금 예단할 수는 없다. 시간변수가 지닌 힘 때문이다.

시간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 후보의 단일화 여부이다. 물론 박근혜 후보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상황은 1대1 구도이다. 야당은 끊임없이 흥행과 바람몰이를 해나갈 것이다. 상대후보의 결정과정을 보면서 장정을 견뎌야 한다. 관전자 입장에서는 재미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통이다. 고통스럽지만 1대1 승부를 박빙으로 간주해야 한다. 대선결과를 51:49로 상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면 백척간두에 선 심정에서 현실을 진단해야 한다. 언제나 정신적 긴장을 놓아서는 안된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결과는 박 후보의 명암을 읽어내는 잣대가 된다. 이번 경선결과는 ‘역대 최저 투표율, 최대 득표율’로 압축된다. 최저 투표율은 박 후보의 어둠이고 최대 득표율은 밝음이다.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것을 더 밝게 만들면 박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박 후보의 밝은 면은 적지 않다. 개인적으로 부모의 좋은 형질을 고르게 갖고 있다. 자태, 분위기, 그리고 미소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은 육영수 여사에게서 물려받았다. 반면 위기를 뚫고 나가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정련된 남성성이 표출된다. 여성 속에 있는 남성적 요소인 애니무스(animus)가 강하게 발현된다. 강인한 남성성은 박정희 대통령의 상징이다.

박 후보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제법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박 후보가 지난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늘 정치의 중심에 서 있고 선거의 여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이다. 절대적 지지층이 지닌 힘 또한 밝은 면이다. 과거 노사모에 비견될 만하다. 열렬 지지층의 애정은 때로는 여신이 강림

특별기고



임동욱

·한국 교통대 행정학교수
·(사)한국대통령학연구소 부소장

젊은세대 일자리등 비전 제시 팀 플레이로 ‘大直若屈’ 지켜야

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거의 신앙 수준이다. 84%라는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경선 사상 최대의 득표결과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투표율까지 감안하여 전체 선거인단을 기준으로 한 표의 비율을 따져보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전체 선거인단에서 박 후보가 얻은 표의 비율(투표율X득표율)은 35% 정도에 불과하다. 집권여당의 선거인단에서조차 박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열에 넷이 안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박 후보의 어두운 면이다. 역대 최대 득표율에 자족해서는 안된다. 최저 투표율이란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둠을 걷어내야 한다. 나머지 60%의 공감대를 얻은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구각을 걷어내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

다.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비전을 명쾌하게 제시해야 한다. 제시한 비전은 정책으로 되살아나 꿈틀대야 한다. 마음을 파고들어야 한다. 절대 지지층에 비해 소위 2040세대는 박 후보를 잘 모른다. 수도권은 다른 지방과 달리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마음을 파고드는 정책의 개발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젊은 세대에게는 일자리가 최우선이다. 일 년에 학비만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내면서 대학에 다녔는데 취업이 어렵다. 나라와 본인 모두 면이 안선다. 박 후보가 강조하는 경제민주화는 물론 지식창조산업 및 창업활성화가 취업문제와 직결되어야 한다. 찢어진 청바지 입는 것보다 중요하다. 젊은 세대가 능력을 발휘할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현란한 수사와 장식식이 아니라 나라의 현실을 꿰뚫는 명쾌한 비전과 정책을 기대한다.

후보 개인보다 후보의 팀이 중요하다. 대통령보다 대통령 팀이 중요한 것과 같다. ‘불완전한 개인이 모여서 완전한 팀을 이룬다’는 옥스포드 템플턴

칼리지 전략리더십 연구소의 모토를 명심해야 한다. 완전한 팀을 이루려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후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로 후보의 팀을 꾸려야 한다. 박 후보가 고집이 세고 불통 이미지가 강하다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 본인이 고치면 좋다. 여의치 않으면 팀을 소통에 능하게 꾸리면 된다. 아는 사람이나 편한 사람만 찾아서는 안된다. DJ는 입현무방(入賢無方)을 강조했다. 친소와 귀천에 얽매이지 않고 재사와 현인을 구해야 한다. 지금은 개인이 아니라 팀이 중요한 시대이다. 유권자는 박 후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따져보고 투표한다. 국민의 선택은 위대했고 끊임없이 진화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박 후보는 끊임없이 신뢰를 강조했다. 신뢰를 이유로 늘 한결같은 견지했고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신뢰 훼손을 이유로 때로는 타협을 거부했다. 물론 훌륭한 덕목이다. 하지만 신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니다. 최근 박 후보가 강조하는 국민행복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노자가 강조한 대직약굴(大直若屈)은 귀담을 만하다. 노자는 “가장 곧은 것은 굽은 듯하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원칙문제에 대해 타협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작은 일에 대해서는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 매달린다. 곧음을 겉으로 드러내고 강변한다. 이제 정치공학에 얽매인 좁은 틀을 늘 고민하고 진정으로 실천해야 한다. 대직약굴에 보다 충실해지면 박 후보는 헌정사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될 수 있다. [4]

정치를 미학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정의하면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의 정당하다. 따라서 정당은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집단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말했다. “한국의 정치는 상심한 자들의 정치”라고. 정치는 없고 권력투쟁만 난무하고, 정당 간판은 있지만 파당만 판치고, 민주정치의 원리는 실종되고 정치공학만 있으며, 정치철학은 없고 포퓰리즘만 설친다. 정치 보스는 있지만 진정한 정치 리더십은 없고, 선동은 있지만 책임은 없고, 일방통행은 있지만 소통은 없다. 아무리 정치와 정당이 권력을 잡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정치와 정치인은 맹종의 전근대적 계파정치와 정체성을 무시한 맹목적 연대정치의 늪에 빠져있다. 국가 발전과 국익, 국민의 삶과 민생은 뒤로 하고 오로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권력투쟁과 정치공학과 감성적 포퓰리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판 못지않게 사회현상 역시 혼돈의 극치다. 법과 원칙은 죽은 지 오래다. 법과 원칙이 죽었는데 상식이 통할 리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는 존칭을 쓰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원수’로, 여당의 유력한 대

대선 정국 정책대결로 이끌어야

통령 후보에게는 쌍욕을 대낮 집회에서 거리낌 없이 토해내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말기적 현상은 이것뿐만 아니다. 소득의 양극화로 상위 1%에 부가 쏟아져서 극빈층은 상대적 박탈감에 이를 갖고 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편의점은 강도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밤의 서민주택가는 강간범들의 운동장이고, 어린이 성범죄는 당국의 대책에도 줄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와 국회에서 시장의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부패와 비리는 정권을 초월해 연속상영 중이다. 자살률 특히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세계 1위다. 사람의 목숨을 지푸라기보다 못하게 여겨 성폭행하고 잔인



김 화

·본회 전문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한 수법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흉악범 유영철 등은 역대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자비로 국립호otel(?)에서 여생을 즐기고 있다.

비생산적인 정치행태와 정치인의 불신으로 한국사회는 책임 없는 자유의 방종과 시민의식 실종, 질서파괴와 남을 배려하지 않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창궐로

혼돈의 사회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큰 질서는 고사하고 조그마한 보행질서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 계단과 강변의 산책로에 친절하게 ‘우측통행’이라고 써있어도 무슨 심리인지 기를 쓰고, 좌측통행으로 어깨를 부딪치며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태연하게

지나간다. 고위관리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그들에게 불법이 아니듯이 시민들도 좌측통행쯤은 거리낌 없이 보행한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정치에서 사회규범까지 총체적으로 혼돈에 빠져 있다. 외람되지만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주의는 유리그릇 같아서 잘 가꾸고 관리하지 않으면 깨지기 쉽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조국인 영국의 명재상 윈스턴 처칠도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형태다. 단 그 전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한다면”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최단 시일에 세계 20-50(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에 진입했지만 분노와 부패의 정치, 양극화 경제, 혼돈의 사회, 세대 간 갈등으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안보·교육 모든 분야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18대 대통령 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있다. 무너져 가는 한국사회를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분열된 사회

5면으로 이어집니다.

‘김정은의 北’ 개혁개방으로 갈까

‘6·28 조치’의 핵심내용

지난 4월, 노동당 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등장시킨 북한이 경제분야에서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 대표적 조치가 바로 ‘신경제 정책’으로 불리는 ‘6·28조치’다. 이 조치의 핵심내용은 특급기업소(종업원 1만 명 이상)와 1급기업소(종업원 5천명 이상)를 제외한 다른 공장·기업소는 국가계획에서 제외되어 생산량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협동농장의 경우 전체 수확량의 30%를 자율적으로 처분하도록 자유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배급 대상도 국가기관과 교육·의료 분야에 한정하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배급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북한 정권이 기업과 개인의 생산물에 대한 자율 처분권을 확대하고 생활기반도 장마당에 의존하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에 대한 일반 주민의 배급제는 사실상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부터 폐지된 거나 다름없다. 다만 당국이 이제 와서 그것을 인정하였다는 차이뿐이다.

북한 경제 개혁의 어려움

이번 북한의 ‘신경제 정책’을 놓고 학자들은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계 개혁 단계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유형 즉 첫째 ‘공산당 지배+집권적 계획+생산수단의 국가소유’, 둘째 ‘공산당 지배+분권적 개혁+생산수단의 국가소유’, 셋째 ‘공산당 지배+계획과 시장의 공존+생산수단의 국가소유’, 넷째 ‘공산당 지배+시장경제+생산수단의 민영화’ 중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북한의 내각 총리 박봉주는 지난 2005년 초반 이에 못지 않는 ‘신경제 정책’을 준비하다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등 강경파에 밀려 총리직에서 밀려나야 했었다. 물론 군부의 경우 2010년 김일철 무력부장, 올 4월 김영춘 무력부장에 이어 이번 7월 이영호 총참모장까지 제거함으로써 어느 정도 반발요소를 완화하였다고 하나 아직 노동당과 내각에도 기득권 세력은 적지 않게 도사리고 있다. 중국의 등소평도 1978년 개혁 개방을 선언한 후 제일 먼저 착수한 작업이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벌이 회사와 기업들을 민간으로 전환한 것이다.

엘리트들의 충돌

지난 7월 15일 김정은의 참석 하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안건은 매우 중대하고도 예민한 정책 사항이었는데 바로 장성택그룹이 그동안 설계한 신경제 재건정책(6.28방침)에 대해 당중앙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서를 채택하는 회의였다. 즉 당중

특별기고



안찬일

·(사)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
·정치학박사

비롯해 인민생활향상에 많은 것을 투자하였지만 이제는 인민들의 요구대로 자체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자립 환경을 꾸려주고, 식량 문제도 남에게 손을 내밀지 말고 자립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가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다지는데 더 많은 예산을 돌릴 수 있는데, 왜

일이 심각하게 번지자 장성택은 김정은에게 다가가 뭐라고 낮은 목소리로 상의를 하였고, 김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령도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함께 혁명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은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 나가는 데서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오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망발한 이영호 총참모장을 모든 직위와 직급에서 즉시 해임한다”고 선포하였다. 장성택은 주변을 지키고 선 호위국(사령관 윤정린 대장)군인들에게 이영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는 현장에서 계급장과 초상휘장, 그리고 모든 증명서들을 압수당한 채, 군인들에게 끌려 나갔다.

북한 경제의 미래

지난 8월 장성택은 무려 50여 명의 시찰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과거 김정일도 이런 규모의 대표단을 이끈 적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중국은 장성택에게 바라는 돈은 안 주고 “시장 시스템부터 도입하라”는 따끔한 충고만 주었다.

김정은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갈 것이란 진단은 다음과 같은 연유로부터 나온다. 첫째 김정은이 스위스 해외 유학파라는 점, 둘째 장성택을 비롯한 후견그룹이 개혁선호세력이란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북한 경제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저점’에 도달해 있다는 것 등이다.

김정은은 이제 자기식의 ‘시장 사회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군이 과거를 딛고 갈 필요는 없다. 중국의 등소평은 모택동에 대해 ‘7공 3과’ 즉 과오가 셋이고 공적이 일곱이라는 등식으로 그를 역사에 묻었지만 김정은은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을 밝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새로운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만 해준다면 북한의 정치문화에서 과거는 자연히 묻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민족공동체를 이룰 통일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운명의 시점에 서 있다. [Q]

‘신경제정책’ 반대 이영호 제거 자기식 시장사회주의로 갈듯

양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정치국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들은 방청으로 참가하였다고 한다. 15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은이 직접 주관하였다고 한다. 먼저 장성택(정치국위원)이 김정은의 구상과 의도를 반영하여 이번에 ‘신경제재건정책’이 마련되었다고 전제하고 나서 정책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뒤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영림(내각총리)은 신경제재건정책은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마지막 돌과구를 열기 위한 공세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였다.

사단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정치국 상무위원들 중 마지막으로 발언한 이영호(군총참모장)는 “신경제재건정책은 선대 수령들이 평생을 다해 지킨 사회주의원칙들을 일순간에 버리고 자본주의를 끌어들이려는 잘못된 생각이고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개혁·개방 압박에 굴복하여 당과 군대를 말아먹으려는 행위”라고 비토하였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성택이 즉시 반격을 가했는데, “이번 정책은 개혁과 개방정책도 아니고 특히 조국보위에 더 많은 것을 돌리자는 정책인데 왜 반대하는가, 지난 시기 국가가 식량과 생필품공급을

군대에서 반대하는가? 또 이번 경제재건정책은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마련된 것인데, 당신은 당중앙군사위원장의 령도에 도전 하는가”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이영호는 “당신은 정치국위원이기 때문에 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하고 나서, 김정은을 향해 “장 부장의 재건정책은 내일에는 개혁정책이 되고 나아가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개방정책이 된다. 우리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한 치도 어겨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장 부장은 며칠전에도 최룡해 총정치국장하고만 국가재정을 집중한다는 미명하에 강성무역총회사(노동당은 최근 군부의 힘에 의존하고 있던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도 해체하여 내각으로 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필자주)를 비롯해서 총참모부 산하의 알짜배기 무역회사를 내각에 넘겨주는 문제를 검토하였다고 하는데, 결국은 장 부장이 이 회사들을 자기 손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참모장도 제껴놓고 저들끼리 혁명무력의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다른 데로 돌리는 모의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가? 이것은 김정은 동지를 정직하게 받드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길길이 성토했다.

4면에서 이어집니다.

를 통합시킬 수 있는 것은 최고지도자의 리더십밖에 없다. 그래서 18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대통령 선거보다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이 시기에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대선정국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정치와 정치인을 너무 존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듯이 너무 비하하거나 폄하할 필요도 있다. 정치는 원래 권력욕이라는 인간 본능의 산물이기 때문에 성욕처럼 필요하지만 때로는 추한 것이다. 그러나 추할 수 있는 권력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한 정치다. 정치의 이미지는 원래 추한 것이었다. 정치를 뜻하는 ‘politic’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poli는 많은(many), tic은 피를 빨아먹는 존재들(bloodsucking creatures)이라는 의미다. 정치인은 대중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태생적이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민주주의에서도 정치인을 도둑으로 인식했다. 그리스 국민들은 그리스 정치를 ‘도둑정치’라고 불렀다. 도둑(kleptes)과 통치(kratos)라는 그리스어를 합친 말이다. 그리스 도시국가의 시민들은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한 정치인을 투표로 결정

해서 10년 간 나라 밖으로 추방했다.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연혁이 오래됐다.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비유가 고대로부터 전해져왔다. “훌륭한 정치인은 정직한 강도만도 못하다” “정치인들은 강이 없는 곳에도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한다” 요즘 재원은 아랑곳없이 무상시리즈를 연속극으로 남발하는 정치인들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벤오크리 나이지리아 작가는 “마술사와 정치인은 공통점이 많다. 자신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의 주위를 교묘하게 돌려버리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추한 정치를 아름다운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감시와 정치권과 정치인 자신들의 내부혁신으로 가능하다. 그 중에서 국민들의 감시는 선거에서 투표행위로 이뤄진다. 갈수록 국민의 투표행위는 정치적 무게를 더해간다. 그래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택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내 후보경선을 실시하고 있지만 박근혜의 대세론과 안철수의 대망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6면으로 이어집니다.

올림픽 5위 영광만큼 ‘숙제’도 많다

한여름 밤의 메달잔치는 신바람 축제처럼 끝났다. 올림픽이 이렇게 즐거웠던 때가 또 있었는가. 17일 간의 런던 드라마가 국민들에게 모처럼의 행복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기뻐할 만했다. 이른바 선진국형으로 종목다변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주목하게 된다. 그 성적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메달총량에서는 20여년에 걸친 큰 차이가 없지만 그 결과는 자랑스러운 진전임에 틀림없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도 없었던 것 같다.

눈물을 축제로 만들었다

어느 신문사실 제목이 ‘코리아의 성숙함을 드높인 올림픽’이라고 했다. 승자만이 아니라 패자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 게 그만큼 스포츠정부를 보는 국민의식이 성숙했음을 말해준다. 어느 주간지의 특집타이틀은 ‘최선을 다한 그대들은 모두가 영웅’이라는 최고의 예찬을 했고 6개 대학 공동이름으로 된 신문 전면광고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수의 골인장면 사진과 함께 〈눈물을 축제로 만드는데 걸린 시간 76년, 이제 슬퍼서 울지 않습니다〉라는 표제를 붙였다. 올림픽 시상대 중앙에 우뚝 섰음에도 웃음조차 짓지 않았던 대한의 아들 손기정, 그리고 애끓는 마음으로 가슴 속 태극기를 바라본 선조들의 눈물을 회상케 하는 광고카피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올림픽은 언제인가부터 전쟁이 되었다.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국력, 국력의 경연장으로 바뀐 지 오래다. 정치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을 처음 취재하면서 ‘쿠베르탱의 이상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모스크바와 로스앤젤레스반쪽 올림픽의 시련을 거쳐 서울에서 되살아났던 평화정신이 4년 전 베이징에서 심각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했다.

메달레이스의 열기와 최고기량의 명승부를 보는 것 못지않게 선진국의 자존심 경쟁이 볼 만했다. 올림픽정적이 곧 선진국 지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곧잘 그런 꿈에 취하곤 한다. 어쨌거나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다음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런데 총 메달수에서는 우리보다 10개나 많은 일본이 종합 6위로 우리보다 앞선다. 이에 고무된 일본

인 50여만 명이 도쿄 긴자거리를 메우고 축승퍼레이드를 벌였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한일 간의 성적보다 한동안 남북대결에 목을 걸었던 시대도 있었다. 그 이전에 빈국에서 벗어난 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감히 넘보기 어려웠던 스포츠열강의 대열에 오른 게 얼마나 대견



이태영

·본회 부회장
·KOC 국제위원

국민의식 선진국 수준 키울때 스포츠외교 강화 ‘왕따’ 막아야



펜싱 신아람선수가 ‘끝나지 않는 1초’에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오열하고 있다.

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성취감에 들뜨기보다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아니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 동·하계 종합5위로 그만큼 국력이 높아졌으나 우리의 경제력이 바로 선진문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국민의식 속의 스포츠정신이 메달순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야말로 헛된 일이다. 여기서 국내정치와 사회윤리의 부끄러운 현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건전한 스포츠정신은 물론 페어플레이를 생활화하는 우리의 사회 환경이 과연 선진국 수준에 올라있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오심대처 갈팡질팡 아쉬움

이번 대회를 통해 가장 아쉬운 부분은 두 말할 것 없이 잇단 오심의 피해와 이에 대처하는 외교부재였다. 비록

우리만의 망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상대를 고르느라 겨우고 비겨주는 반 스포츠맨십으로 8명 전원이 실격당한 배드민턴의 낭패는 실로 충격적이다. 망신해프닝이 하나 더 있다. 축구 3, 4위전이 끝난 뒤 우발적인 ‘독도 세리머니’를 펼쳤다가 시상식에 참석도 못한 박종우 사건이다. 정치적 의도가 없는

지 않는 1초’에 눈물을 흘린 펜싱의 신아람 사건이다. 그것이 계시원의 착오였다 할지라도 오심의 피해는 선수의 몫이다. 국제펜싱연맹이 특별상을 주겠다고 제의한 걸 보면 그들도 실수를 인정한 게 틀림없다. 그런데 느닷없이 공동 은메달 제의설이란 무엇인가. 선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누가 꾸며낸 것인가. 선수단 본부든 관계단체든 지도부부터 갈팡질팡했다는 증거다.

핸드볼의 경우도 따지고 보면 외교에서 밀리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생순의 눈물’ 이전에 애틀랜타에서의 우리 여자핸드볼의 분루는 핸드볼종가를 자처하는 유럽이 푹푹 뭉쳐서 만든 결과다. 이 벽을 깨트리려면 코트승부이전에 인맥구축이 먼저다. 중국처럼 정치와 경제의 힘으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의 고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네티즌 무분별 공격 사라져야

오심과동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국내 네티즌의 사이버공격도 부끄러운 일이다. 무식한 영어로 “당신을 죽이겠다”는 등의 험악한 협박을 한다면 국제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짐작되고도 남는다. 언어장애의 피해보다 더 무서운 언어폭력의 후유증을 남긴다. 다시 말해서 메달로 높아진 국격을 다시 떨어트리는 셈이다.

우리선수들이 세계의 전쟁터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않는 건 괄목할 발전이다. 베이징에서만 해도 한국이 견제 정도가 아니라 무시당할 때도 많았다. 이 벽을 깨트리려면 경기력만으론 풀어나가기 어렵다. 국격을 따라가는 외교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오심충격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은메달을 차지한 박태환의 성숙하고 유연한 태도는 역시 참괴인 급이다. 끝까지 훌륭한 매너를 보여준 장미란의 아름다운 패배는 그 이상이다.

한 여름 밤의 잔치는 끝나고 우리는 6년 후 평창에서의 겨울잔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해가 지지 않는다 했던 문화중심의 나라, 사상 처음 세 번 올림픽을 연 모범도시의 축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정부의 전폭지원과 시민의 참여가 왜 중요한지 경기력 이상으로 국민 모두의 올림픽정신이 필요하다. 영국인들은 런던의 성공을 기뻐하며 노래했고 우리는 새로운 자신감 속에 희망을 찾아냈다. [4]

5면에서 이어집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추대대회로 끝날 것이고, 민주통합당은 누가 후보로 선정되어도 안철수라는 산에 막혀있다. 박근혜와 안철수의 비중이 너무 큰 탓인지 두 당의 당내 경선은 국민들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모바일 투표 희망자가 예상했던 숫자를 밑돌 만큼 저조하다. 안철수 교수는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책을 출판하는 것을 봐서 곧 출마를 발표하리라고 본다. 잠룡들이 아무리 설쳐도 18대 대선은

박·안의 빅매치로 시소게임이 예상된다. 박근혜는 19대 국회의원 전국구 공천비리로, 안철수는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면서도 속으로는 재벌을 옹호하는 언행불일치로 상처를 입었지만 대세론과 대망론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 두 사람은 오차범위 안에서 지지율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문제는 18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전이 19대 국회의원 선거전을 닮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19대 총선은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시종일관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전략과 정치공학이 판

을 쳤다. 추악한 선거전이었다. 진보정당의 당내경선부터 비리로 얼룩진 선거였다. 정치인들의 선거전이 이렇게 추악하니 국민들은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고 감동이 없다. 정치인이, 대선 후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네거티브 선거전보다 역사성을 띤 정책으로 대결해야 한다. 훌륭한 지도자는 여론에 구애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보고 정책을 세운다. 표만 구걸하는 당장에만 효과 있는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친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파탄이 살아있는 교훈이다.

18대 대선에서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역효과라는 것을 국민들은 투표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다운 선거가 된다. 후보가 내세운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그래야만 구세주는 몰라도 국가이익과 민생을 위한 정치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

그래서 18대 대통령선거에서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투표는 역사적 사명감과 의미가 부여되어있다. 잘 한 선택의 효과는 국민에게 되돌아온다. [4]



www.kipes.com

제19회

국제인쇄산업대전

19th Korea International Printing & Graphics Industry Show

9.5(수) - 8(토)

KINTEX 고양

오전10시 - 오후5시

22개국 225개사 참가!!!

인쇄, 그 영역을 넘어...

발전하는 인쇄산업을 확인하세요!!!



최신티렌드의
디지털 인쇄...



라벨, 스크린인쇄의
다양한 특수 인쇄...



인쇄영역의 확대
텍스타일, 사인인쇄



최신 인쇄기술과
디자인 컨퍼런스

주 최 : 한국이앤엑스 · 대한인쇄문화협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지식경제부 · 경기도 · KOTRA ·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인쇄기술협회 ·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 대한인쇄연구소 ·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신청 및 문의처 : 한국이앤엑스 T. 02-551-0102 E. kipes@kipes.com



MB 독도 방문 좌파지 논평 황당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적인 독도 방문은 한일 관계에 큰 충격파를 일으켰다. 이는 전후 67년이 지나도 군국주의를 청산 못하고 독도를 넘보며 교과서를 동원해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보낸 강력한 경고였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친박 핵심까지 “청와대가 포퓰리즘 외교에 기대다”고 공박했다. 박근혜 의원은 부랴부랴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진화했다. 국내 언론은 극소수 좌파지를 제외하면 ‘해야 할 것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동아일보는 8월11일 사설에서 ▲2005년부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방위백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교과서로 자라나는 세대에 역사왜곡을 부추기는 문부과학성 ▲올해 한국 외교백서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것을 문제 삼아 역지를 부린 일본 정부의 처사를 비판하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 따라 국가원수로서 독도 방문을 결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화일보는 10일 “현직 대통령의 독도행은 늦었지만 당연하고 의미 있는 결단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도 11일 사설로 “이 대통령은 독도를 둘러싼 최근 일본의 움직임이 방치할 수 없는 선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온 것으로 본 것이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썼다.

‘일본이 자초’ vs ‘뭘 하자고’

그러나 좌파지인 한겨레는 11일 사설 ‘뜬금없는 이 대통령 독도 방문, 무얼 하자는 것인가’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다. 다른 대통령들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대통령만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을 것이다”라면서 큰 실책인 양 비난했고 “친인척 비리와 실정으로 권력누수에 빠진 이 대통령이 곤경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국민의 감정적 호응이 큰 일본 문제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 언론의 논지를 차용했다. 영토 야욕이나 성 노예(종군위안부)사죄 같은

진정한 한일 우호를 향한 철저한 반성 요구는 뒷전으로 밀린 듯 했다. “깜짝쇼”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찾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가 절실하다”는 논지도 폈다. 한일 간에 지금 가장 큰 ‘다름(異)’이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식민사관이다. 뭐가 ‘구동존이’인지 모를 말이었다. “올고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티파원

구심력을 회복하려는 것이 상투수단이다. 미래지향을 내건 이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라고 공격했다. 이에 답한 사설이 “왜 지금 독도를 방문해야 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일부 있다.

그러나 이웃 국가의 영토에 터무니없이 눈독을 들이면서 점차 더 심하게 역지를 부리는 과정이 있었음을 생각하면

주류신문은 모두 “적절한 행위” 한겨레주장, 日언론 논지와 비슷

싶는데 뽀뽀 때려준 격”, “굶어 부스럼” “일본 쪽의 역린(건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용의 비늘)인 일왕의 사죄 요구로 양국관계가 전면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비유도 했다. 한국일보 사설 역시 “대통령 사상 최초의 방문이라는 상징성이 놀랍지만, 합리적 이유나 배경을 찾기는 쉽지 않다. 새삼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칠 이유가 없다”는 이상한 주장을 했다. 간특한 일본에 맞서려면 독도는 늘 우리 땅이라고 외쳐도 모자란다. 일본의 발악은 독도방문이 무엇보다 저들의 영토 야욕을 통타(痛打)했기 때문이다.

‘황국신민’을 강요한 식민통치와 전쟁범죄를 지휘한 소위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후손 일왕이 방한하고 싶으면 독립운동가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일본 극우신문 주장 맹비난

좌파지들의 논조는 일본과 비슷했다. 극우지 산케이는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이 인기 만회를 위해 애국 퍼포먼스에 나섰다”, 닛케이는 “한국의 역대 정권은 임기 말이 다가오면 반일카드를

동의하기 어렵다”(중앙 17일), “일본에서 독도 전격 방문이 임기 말에 인기를 만회하려는 정치행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크다”(동아 16일)였다. 특히 국민일보는 20일 칼럼 ‘친일 단죄론자들의 일본 역성들기’에서 “그렇게 일본에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친일파 색출에 앞장서던 야당 및 진보언론이 되레 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다. ‘깜짝쇼’ ‘아주 나쁜 통치행위’란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듯이 지적하는 논평도 게재됐다. 괜한 짓을 해서 일본을 자극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이 오래 힘들게 됐고 문제를 시끄럽고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투인데, 정작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들일 수도 있다는 점은 왜 생각 안하는 것일까? 한국 정부를 공격해! 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일본의 ICJ 제소에 동아일보는 18일 “20세기 초 한국을 병탄한 침략근성의 발로”, 중앙은 “식민지 강점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망동”이라고 질타했다.

일본의 국가이성회복 촉구

그러나 신문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동아 16일 사설은 “이 지역 대표적 민주국가로서 경험은 물론이고 복해를 막기 위한 지역안보협력,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 등 공동과제가 많다”며 일본의 국가 이성을 촉구했다. 중앙도 17일 “국수주의자들이 치는 북소리에 양국민간인들이 신변 안전을 우려하는 사태가 말이 되는가. 국교를 단절할 것도, 전쟁을 할 것도 아니라면 이쯤에서 양국 정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일본 언론의 냉철함도 돋보였다. 우치야마 니케이 서울지국장은 “독도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해인 1905년 한국에게서 빼앗은 것이 된다. 독도문제가 역사문제도 되는 이유다. 대일정책이 대선 쟁점이 되면 새 대통령의 ‘리셋’도 기대하기 어렵고 양국관계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유일의 구원책은 경제와 풀뿌리 교류다. 일본에서 K팝 인기는 건재하고 양국간 방문객은 연간 500만. 한국에게 일본은 수출 3위, 수입 2위의 나라다. 최악의 관계에 있는 것은 정부뿐. 정부끼리 비난의 응수를 계속하면 험악한 분위기가 확산된다. 불이 붙으면 제어하기 곤란한 것이 내셔널리즘이다”라고 걱정했다. 아사히도 “K팝 공연에 수만 명이 몰리고 서울에서 점원이 일본어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시민 레벨 교류는 공전의 황황이다. 이를 정치가 뒷걸음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중의원의원인 시이 가즈오 공산당위원장은 “1905년은 일본이 무력으로 식민지화하는 과정으로 한국의 외교권은 박탈되어 있던 점을 고려해 한국의 주장도 확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내셔널리즘은 금물이지만 영토 야욕과 역사 왜곡 앞에서는 활발한 민간 교류도 모래성처럼 취약하다. 일본과 한국 정부 공격 논리를 주고받는 것 같은 일부 매체의 ‘일탈’은 문제다. 북한이 문제되면 북한을 편들고 일본이 문제되면 일본을 역성드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4]

6·25 참전 국가유공자는 전국에 걸쳐 19만여 명에 이른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80세 이상인 참전용사들에게 의료와 요양, 안장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전국 5개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위탁병원을 두고 있다. 아파트 특별공급과 보훈요양원 입소, 홀로노인·부부 노인세대를 위한 보훈 섬김이 서비스도 하고 있다. 국립호국원은 현재 영천·임실·이천 3곳에 있다. 하지만 잔여 안장 기수가 3만 6000여기밖에 되지 않는다. 새로운 국립호국원을 만들기 위해 최근 충북 괴산군과 양해각서를 맺었다. 약 10여만 기 안장 능력을 가진 호국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차원의 보은사업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한 해

국가유공자 제대로 예우하자

5차례에 걸쳐 해외 참전용사와 가족 재방한(再訪韓) 행사를 열고 있다. 해마다 현지 위로 행사도 45차례나 마련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공무원 월급 우수리 공제를 통해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의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사업으로 한해 5600명, 3억



최완근

·서울지방 보훈청장

6000만 원이 지원됐다. 특히 6·25 때 미군들이 3만 명 넘게 고귀한 희생을 치렀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잘 지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 국민들의 세계인에 대한 의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6·25 참전용사들에게 더 늦기 전에 명예를 찾아 드려야 할 일이 남아 있다. 유공자가 되지 못해 억울한 분들도 없지 않았다. 그런 분들을 좀 더 폭넓게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적 효과가 크다. 보훈체계 개편안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답게 보다 영예롭게 예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보훈의 기본 원칙은 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통해 명예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훈 급여금과 교육, 취업, 의료, 마지막 예우인 안장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

9면으로 이어집니다.

올림픽 TV중계 ‘라디오시대’ 연상

런던 올림픽에서 거둔 금메달 13개, 세계 5위는 누구도 예측 못한 ‘다이나믹 코리아’”다운 깜짝 도약이다.

이에 못지않게 승패를 떠나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 준 선수들의 한층 성숙한 태도와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 준 달라진 국민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진화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 받을 만하다. 중계방송 기술면에서도 방송 3사가 그동안 쌓아온 현장 중계방송 노하우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화면구성과 고품질 음향시스템으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런던의 명물 빨간 2층 버스를 방송에 끌어들이는 SBS 전라도 런던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일으키는 데에 성공한 이벤트로 여겨진다. 방송 시청률 면에서도 한일 축구 3, 4위전과 여자 배구, 여자 핸드볼 등 빅 이벤트와 한국 대표 선수들의 선전 덕에 기대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 선수단에게는 유독 탈도 많았다. 이번 올림픽은 ‘멈춰 버린 1초’, 판정 뒤집기, 잦은 오심, 저주기 논란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던 올림픽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태를 맞은 대한체육회와 해당 협회의 우왕 좌왕 홍보는 피해 선수들의 성숙한 태도와 비교되기도 했다. 일부 매체에서는 박태환 선수의 부당한 실격 판정을 바로 잡은 사례를 들어 과거에 비해 달라진 대한체육회의 대처능력을 치켜세웠지만, ‘멈춰 버린 1초’의 서아람 선수에게 특별상이니 공동 은메달이니 하는 상식이하의 논란을 일으킨 것은 한심한 일이다.

빛나간 애국주의 방송 보도

방송3사는 런던 올림픽에 취재와 중계방송 인력 315명의 대규모 방송단을 파견해 올림픽 전 중목을 빠뜨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방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취재나 경기 해설의 내용에 있어서는 시청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배드민턴 저주기로 한국, 중국, 인도 3개국 4개 복식팀 8명의 선수가 실격 처리되었는데 이를 보도하면서 “중국이 먼저 시작해 할 수 없이 쫓아왔을 뿐이다. 우리 팀은 억울하다. 다른 경기에서도 있는 관행이다.” 따위의 변명을 늘어 놓았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중국 대표팀 코치는 고의 패배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면서 스스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세계 배드민턴협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였다. 그런데 한국 팀은 억울하다고 IOC에 제소했다가 기각 당하고 한국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퇴출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중국 CCTV의 한 진행자는 전력을 다해 싸우는 것이 스포츠맨십이고 “경기 자체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코멘트했다.

판정 뒤집기로 유독 기대주였던 조준호 선수가 일본의 에비누마 마사시에게 패해 4강전 진출이 좌절된 사건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었다. 그러나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정창기

·본보 편집위원
·전 KBS보도본부 보도실장

빛나간 애국심-감정에 치우쳐 저주기-판정 번복등 해설 미흡

일이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에서 벌어졌다. 에비누마선수는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지않은 것이었다”라고 했는데 KBS는 이를 “조준호가 이긴게 맞다. 판정이 바뀐 건 옳지 않다”라고 내용을 왜곡해서 자막으로 방송했다.

‘배드민턴저주기’와 ‘판정뒤집기’ 같은 일이 왜 벌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취재해 분석한 기사나 해설이 없어 대다수 시청자들은 이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른 종목에서는 오심을 인정해도 판정을 뒤집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데 왜 유도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정한 판정을 심판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뒤집을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60, 70년대의 라디오 중계방송은 애국주의의 극치였다. “아! 대한의 건아들아 달려라!” 축구 경기진행과는 관계없이 애국심만 소리높여 부르짖다가 “말씀드리는 순간 골인했습니다”라는 힘없는 멘트로 이어지는 일도 있었다. 권투 중계에서는 우리 선수가 패리는 장면만 계속해서 방송하고 상대방 선수에게 맞았다는 내용이 없어 당연히 우리 선수가 이기는 줄 알았는데 결과는 반대였을 때가 많았다.

우리 쪽 편들기, 애국주의식 해설과 중계라기보다 차라리 응원이라 해야할 해설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런던올림픽 세계5위가 부끄러운 일이다.

고함만 지르는 해설자

2002 월드컵 중계때 거의 발작 수준

의 괴성을 지르는 해설자도 있었고 괴성 수준은 아니더라도 흥분한 나머지 해설을 제대로 못하고 고함만 질러대는 진행자와 해설자도 있었다. 이번 올림픽 방송에서는 고함을 지르는 진행자는 없었지만 감정이 앞서는 해설과 중계방송은 없어지지 않았다.

여자 양궁개인전 16강에서 단체전 우승을 이끌었던 최현

주 선수가 프랑스 선수에게 패해 아깝게 탈락하자 이은경 해설자는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잊지 못하는가 하면 체조 경기에서는 양학선 선수가 개발한 자신의 고난도기술을 성공적으로 연기해 금달을 따게 되자 여흥철 해설자는 흥분되어서 말이 안나온다는 말을 여러차례 되풀이 하면서 횡설수설했다. 같은 선수로서 체조도마종목에서 금메달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잘 아는 선수이기에 그의 흥분을 이해할만하지만 좀 자제했어야 했다. 지금은 소리에만 의존하던 라디오 시대도 아니고 거의 전 국민이 화질이 좋은 TV로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TV 화면도 선명해 경기장면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시청자들의 수준도 높아 단순한 경기상황 설명보다는 경기규칙, 경기에 관한 각종 데이터, 출전선수에 대한 정보제공이 경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해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빠떼루를 줘야 합니다”라는 말을 유행시켜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대표적 금메달 단골 종목인 레슬링의 경우 이번 올림픽에서 ‘빠떼루’를 주는 경기규칙이 달라졌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들 수 없었다. (PATER·라틴어 주의·경고의 뜻)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해 5위를 하는데 기여한 ‘미친듯한 경기’ (금메달리스트 김자연 선수의 표현)와 ‘멈춰 버린 1초’로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펜싱 경기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생소한 종목이었다. 예페, 플뢰레, 사브르 등 펜싱의 종류와 복잡한 경기규칙을 제대로 알고 경기를 본 시청자

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KBS는 펜싱 여자 플뢰레 16강전 남현희와 모하메드(헝가리) 경기 시작 전에 실제 경기 장면과 그래픽을 활용하여 설명했고, SBS도 경기 종목, 경기방법 등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소개했으나 1, 2회 방송으로 그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리기에는 부족했다.

이번 올림픽 기간중 일부 캐스터와 진행자의 방송 복장과 태도가 시청자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MBC 양승은 아나운서의 모자패션이었고 보기 흉할 정도로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옷차림과 패션 쇼에나 나올 법한 차림은 TV시청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과도한 몸짓, 미소가 아닌 해픈 웃음은 천박해 보였다. MBC의 아침 프로그램 'Lndon 2012 올림픽'에 개그맨 서경석과 기상 캐스터 박은지를 진행자로 기용한 것은 미스 캐스팅이었다.

순차방송과 소나기 편성

방송 3사는 그동안 스포츠 빅 이벤트 때마다 3사 동시중계로 전파낭비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런던 올림픽에서는 이런 중복방송을 피하기 위해 순차방송이라는 방법을 도입해 주요 구기종목인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하키는 예선 1사, 8강 이상 2사 생중계 원칙을 준수기로 해 이번 올림픽에서는 3사가 동시에 중복 방송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 진일보한 결정으로 환영 받을 만했다. 그러나 주요 종목 이외 종목과 중계방송아닌 편성에서는 과도한 중복 방송으로 스포츠 이외 다른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청자들의 방송 선택권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 런던 올림픽방송에서 가장 혜택을 누린 방송사는 KBS였다. KBS가 타사에 비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사다리뽑기식 중계종목 선택에서 운 좋게 인기 경기를 많이 뽑아 시청률이 제일 높았다. 한편 MBC는 장기파업의 여파로 인한 부실한 방송과 실격 당한 박태환 선수와의 무리한 인터뷰 시도 등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반면 참신한 기획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한 SBS가 런던 올림픽 방송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끈 방송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SBS가 올림픽을 독점 방송하려는 욕심으로 방송 3사 공동중계의 합의를 깨고 앞선 올림픽 중계권료보다 1,000만 달러 이상 비싼 가격으로 중계권을 단독으로 계약한 것은 비판 받아야 한다.(2006 하계, 2008 동계 1,840만 달러에서 2010 밴쿠버 동계, 2012 런던 하계 3,300만 달러로 계약) [1]

8면에서 이어집니다.

한 보상제도를 마련해 지원해 나가야 한다. 또 그분들의 조건 없는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려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국가보훈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아울러 이 분들에게 국가차원에서 응분의 보상을 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나 월 12만원 정도로는 피 흘려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자국민도 아닌 이민 간 한국인 참전용사에게도 자국민과 차별 없이 월 2,200달러를 통장에 넣어주고 그 밖에 자동차 등록세, 가스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6·25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참전용사들의 명예수당을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최저생계비(最低生計費)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튼튼한 국방과 안보는 튼실한 국가보훈

에서 시작된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독립투사, 참전용사,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확립돼야 국가안보도 확고해진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 주고 싶다. [2]

편집자註 : 위 글은 필자가 국방일보 (8월 14일자)와 인터뷰한 기사를 요약 정리한 것임.

한 우물만 판 미술전문기자 ... 평론 저술

회우초대석

〈50〉

인터뷰 : 글·사진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한국근대미술연구소장인 청여(靑餘) 이구열 회우를 서울 세종문화회관 근처의 연구소로 찾았다. 책들이 벽을 둘러싸고 바닥에도 수북이 쌓여 있다. 이 회우가 직접 썼거나 편집하고 출판에 간여했던 책들도 상당수였다.

직접 타 주는 커피 냄새가 이회우의 따사한 인품과 열정 그리고 성실과 노력이 응집된 향기인 것을 한참 인터뷰를 하면서 깨달았다.

이회우를 만난 이틀 뒤에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50년, '신문과 방송' 500호 기념 세미나가 있었다. 주제는 '이 시대 기자는 누구인가?'였다.

한 젊은 문화담당 기자의 발제 중에 "기자는 전문가일까?"라고 회의하면서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면 기자로 기억되는 것조차 어려워질지 모른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듣고 미술 전문기자 이구열이라는 훌륭한 선배가 있음에 기뻐했다. 전문 기자의 전설이란 생각도 들었다.

이구열 회우는 20년 전 회갑기념 논문집 '근대한국미술논총'에 쓴 '나의 회고'라는 글에서 살아온 과정을 세 시기로 대별했다.

1) 6·25전쟁과 피난부터 7년간의 군복무 2)15년간의 신문기자 생활 3)미술 평론과 한국근대미술사 조사연구에 전념해온 자유생활. 그런데 그 자유생활을 팔순의 지금까지도 계속 누리고 있었다.

이 회우는 지난해 8월 KBS라디오의 일요초대석에 출연해서 '풍운의 여류화가 나혜석 연구 40여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지난 1월에는 OBS의 명불허전에 출연해서 미술전문기자, 미술 평론가로, 저술가로 활동한 삶의 파노라마를 풀어내는 등 귀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최초, 최고의 미술 전문기자

1958년 포병장교로 복무하다가 대위로 제대한 이구열 회우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아현동 셋방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군에서 가깝게 지낸 전우의 소개로 임방현씨를 알게 되고 그 연줄로 세계일보에서 일하게 된다. 어렵지만 공부해야겠다는 열망으로 홍익대 미술학부 3학년에 편입했다.

그 시절 고서점을 다니면서 엄청난 책을 읽었다. 대부분이 미술관련 서적이었다. 특히 유명 화가들의 전기를 탐독했다. 미술에 대한 관심은 어려서부터 유별났고 중학교 때에 벌써 서양화가들의 전기에 심취하곤 했었다.

한국일보로 옮겨 문화부장을 하고 있던 임방현씨가 이회우의 실력을 인정해서 어느 날 "이형, 미술평 하나 쓰쇼."라고 한 것이 계기가 돼서 미술평론가로 자리 매김하기 시작했고 세계일보가 민국일보로 바뀐 뒤에는 문화부 미술담당기자로 빛을 발하게 된다. 능력이 평가를 받으면서 1962년에 경향신문으로 스카우트 된다.

바쁜 취재 일정에도 열정이 남아 1964년에는 계간 잡지 '미술'의 주간으로 편집도 담당한다. 혁명주체로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서울신문 장태화 사

장이 미술관련 사업을 벌이고자 문화부장에게 물었더니 경향신문의 이구열 차장을 데려와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당장 데려오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서슬이 퍼렇던 장사장에게 잡혀 가다시피 1970년 문화부장대우로 자리를 옮긴 뒤 원로작가 초대전 등의 새롭고 큰 일들을 해냈다. 이시기에 사장 특별기를 타고 지방출장을 다녔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한국문화재 비화'를 100회 연재했으며 '잃어버린 한국문화재'란 제목으로 일본어로 번역돼 도쿄 교포신문에 실린 일도 보람이었다.

1972년에는 대한일보 문화부장으로 전직했으며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원으로 활발한 미술평론 활동을 펼친다. 대한일보로 자리를 옮기고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아침에 출근했더니 "대한일보가 어제 문을 닫았다"고 했다.

대한일보가 문을 닫기 전 동화출판공사의 임인규 사장과 이근배 주간이 '한국미술전집'을 함께



아직도 소주 몇잔 씩은 거뜰히 마실 수 있다는 이구열회우가 식당에서 포즈를 취했다.

화가들 전기 탐독 ... 미술평으로 명성 ... 신문사 스 대한일보 폐간으로 기자생활 마무리 ... 근대 미술

출간하지는 제의가 있었지만 거절했는데 대한일보가 문을 닫자 다시 함께 일하자고 찾아왔다. "너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면서.

그러나 이 회우에게는 같이 일한 6명의 문화부원들이 있었다. 나만 생각할 수는 없었다. 경향과 서울신문 등에 부탁해서 부원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문화부 미술담당 이구열 기자는 부지런했고 열정적으로 취재했으며 계속해서 공부했다. 그래서 그는 미술 분야 최고의 기자였고 평론가였다. 대한일보가 문을 닫아 15년간의 기자생활을 마감한 이 회우는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다. "나도 나이 40인데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글 쓰고 책 쓰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겠다"고.

출판과 평론, 연구와 조사

미술전문기자로 실력을 키우고 열정

을 태웠던 이 회우는 기자의 일자리를 잃으면서 자유 생활로 들어서서 더 큰 비상을 펼친다.

다음해(1973년) 동화출판공사로 옮겨 '한국미술' 전집을 만드는 큰 일에 빠져든다. 2년 반 동안, 열정으로 선사시대의 토기부터 시작해서 근현대 미술을 아우르는 '한국미술전집' 15권을 출간하는 데 상임편집위원으로서 진행을 총괄하면서 보람 있게 마무리 지었다.

한국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거사요 쾌거였다. 학계와 출판계, 사회각계로부터 커다란 찬사가 이어졌다.

동화출판공사는 이회우의 노고에 보답의 의미를 담아 이회우가 하고 싶어 하는 이경성 선생의 근대한국미술 관계 논문을 묶어 '한국근대미술연구'로 출간하도록 도왔고 이회우가 서울신문에 재직할 때인 1971년 1월부터 17회에 걸쳐 월간 여성동아에 연재하여 화제가

되었던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 부제, 한국 최초의 여류화가 나혜석의 영육의 생애'를 단행본으로 만들어 주기도 했다. 이회우의 근대한국미술연구의 첫 단행본인 '한국근대미술산고'도 주위에서 많은 찬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모두 이회우의 한국근대미술사 연구 작업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이회우는 이런 과정을 통해 미술 평론가로, 작가로, 미술사가로, 저술가로 활동공간을 넓혀 간다.

근대미술연구소, 후반생의 자화상

이회우는 자신의 후반생, 자유생활이 1975년부터 시작됐다고 밝힌다.

'한국근대미술연구소'를 차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연구소를 유지하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시절이다. 그리고 연구소의 설립부터가 후반생의 자화상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연구소의 창설

술로 자유생활 누린다

李龜烈

- 전 대한일보 문화부장
- 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현 한국근대미술 연구소장

사진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수필가)

일은 8월15일로 정했다. 역사적인 광복절을 자유생활의 시작과 합치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개화기 이후의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변화, 발전해온 과정과 구체적인 작품 및 작가를 연구·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미술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한국근대미술연구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구 활동의 결과를 담아 ‘한국 근대미술’ 창간호를 그해 11월에 발간



이규열회화가 떠낸 이당 김은호 화백 선집.



‘청여’라는 호를 따 쓴 이규열 회우의 당호 현판.

스카우트 대상으로 술 연구에 온 열정

했고 1977년 11월에 5호까지 발간하는 기록을 남겼다.

한국근대미술연구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980년대에는 ‘한국 근대미술 자료집’과 ‘국전 30년’을 간행했고 금성출판사의 ‘한국근대화선집’ 전 27권의 편집주간을 맡아 5년 만에 완간하는 보람을 이뤄냈다. 이밖에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지원하는 ‘북한 문화예술 연구’ 가운데 ‘북한의 미술, 그 체제 종속의 실상’에서 북한의 미술을 본격적으로 조사·정리하는 큰일을 맡아 하기도 했다.

미술평론가 이규열과 근대미술연구소가 이런 업적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너무 크고 벅차다.

근대미술연구소는 1991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 지금의 자리에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는다. 이당 김은호 화백의 도움과 부인 김경희 여사의 힘이 컸

다고 한다.

은인들, 고마운 사람들과의 만남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이회우는 연안중학교에 다니던 18살 때인 1951년 1월 중공군의 남침을 피해 홀로 월남한다. 구월산부대 철수 병력들과 같은 배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으나 너무 늦어 충청남도 당진에서 내려 뿔뿔이 흩어졌다. 이회우의 은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본격화된다.

배를 타게 해준 은인, 피난 길 충청도에서 밥을 먹여주던 아줌마 은인, 잠자리를 마련해준 시골 아저씨 은인도 있었다. 중학교 때 미술부장 선생님이 었다가 전쟁 때 군부대 문관으로 있으면서 숙식문제를 해결해 준 선생님도 은인이고 군 장교로 입대할 수 있는 정보를 준 거리 광고도 은인 못지 않은 감사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군 생활을 하면서도 술한 은인들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금화지구 전투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도,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친 것도 은인인 전우들의 도움 덕이었다.

임방현 부장에게 이회우를 추천해 새길을 건 도록 도와준 전우와 그의 청을 들어 자신을 기자의 길로 이끌어준 임방현부장도 은인이었다. 미술기자로 만난 이당 김은호 선생도 은인중의 하나였다.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해서 은인을 만난 것은 지금도 은인들을 잊지 않는 이회우의 고운 심성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부인 김경희 여사도 은인중의 큰 은인이다. 개성출신인 부인이 잘 해주어서 지금도 걱정 없이 잘 살며 술하에 남매도 잘 자라주었고 잘 살고 있어 고맙다고 했다. 자녀도 은인 중에 포함되는 것 같았다.

미술기자로 일할 때 이화여대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부인을 만났는데 키가 컸고 역사를 공부해서 대화가 됐으며 미모도 관촬아서 결혼했다며 또 고맙다고 했다. 부인은 이회우가 기자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았고 미술에 대한 공감감이 이뤄졌으며 성격이 따뜻해 결혼했는데 지금도 남편의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다. 그 믿음에 신앙과 같은 깊이가 느껴졌다.

이회우는 근대미술이란 한 우물을 팎고 열정을 갖고 꾸준히 열심히 취재하면서 연구·조사하고 글을 썼다. 기록하며 기록으로 남는 성공의 삶을 계속해서 쌓고 있다.

기억력도 놀랍고 근대미술에 대한 열정은 조금도 식지가 않았다. 아직도 많은 일을 더 해야 할 능력과 소명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太平路에서

막말과 인격포기자



최병요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막말’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든 필자는 ‘막돼먹은 사람의 저속한 지껄임’ 정도로 해석한다. 어쩌면 ‘인격포기자가 함부로 내뱉는 말’이 더 정확한지도 모르겠다.

요즘 사회 각층에 막말이 난무한다. 그만큼 사회가 어지

러워지고 스스로 인격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증좌다. 막말은 ‘갈 데까지 갔다’, ‘끝장내버리자’, ‘더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의연한 표현이지만, 사실 ‘의연함’과는 거리가 먼 불손과 무지의 표출에 다름 아니다. 막말을 일삼는 자가 스스로 ‘욕쟁이’라고 천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욕’은 때로 그 속에 해학을 감추는 경우가 있어 ‘친근한 사이의 다정한 표현’일 수도 있으나 막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듣기에도 거북해 혀를 끝끝 차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막말은 어떠한 상황에도, 누구에게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본새다. 그래서 우리는 막말을 하는 사람을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치부한다. 하물며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선 몸가짐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말가짐인데 막말을 자랑거리인양 내세우고 있으니 적절한 수식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막말은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 흔히 자기편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라며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면 강도 높은 훈계로 해석되지만,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오’ 하면 그건 불효자식의 막말이다.

이런 정도의 불문율을 몰라서일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어느 막돼먹은 사람의 막말은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여성을 비하하고 어르신을 폄하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교양이 의심받아 마땅한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하고 직설적인 언사로 대중을 희롱하는 것은 인격파탄을 떠올리게 한다. 그 얼굴이 너무도 뻔뻔스러워 역겨울 지경이다.

어느 일선 판사의 막말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의 머릿속엔 꽤 쓸 만

한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을 터인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가카빅얏’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깔아뭉개는 뉘두리라니 정신연령이 의심스러워도 한참 의심스럽다. 그런 사람이 또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세태라니.

막말에 관해 얘기한다면 최근의 또 한 가지 어처구니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가 집안의 재산다툼에 휘말린 것에 대해 제3자로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운당치 않지만 그의 관련된 발언은 듣기가 거북한 막말이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한다.

사마천은 사기에 이 시대는 물론 당시에도 외경의 인물이었던 공자에 대해 ‘불효막심한 자’라고 서슴없이 기술한 바 있다. 이유는 공자가 자기 아버지의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공자가 전국시대의 와중에서 부친의 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지만 전혀 근거가 없지도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효막심’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집안의 치부가 결코 자기와 상관없는 사안이 될 수 없음을 왜 모를까.

최근엔 야당의 중진 정치인이 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여성 정치인을 향해 “그녀”이라고 지칭해 안팎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막돼먹은 사람의 소행이다. 그는 아마 자기 집에서도 부인과 자녀를 향해 서슴없이 ‘이년, 저년, 그녀’이라고 내뱉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우국 애국지사로 추앙받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명예에 침을 뱉고 있는 격이다. 우리는 오늘도 어디선가 막말을 듣거나 막말 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직접 대놓고 막말을 하는 사람을 더 이상 상종하는 것은 현명한 처신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라도 막말을 일삼는 사람은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것이 군자의 처신이다. 혹 공인의 신분이거나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막말로 국민과 대중 앞에 나서는 일이 있다면 철저히, 아니 온 힘을 다해 배척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풍격을 지키기 위한 배운 자, 앞선 자의 의무이고 권한임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4]

손녀들에게 전해 주려고 지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이회우는 지금 6·25 근

처를 더듬고 있다고 했다. 손녀에게 쓰는 그의 이야기 자서전이 기대된다. [4]

강원도 영월(寧越)은 험한 산들이 병풍처럼 사방을 두르고 그 사이로 남한강 상류를 이루는 동강과 서강 두 줄기 강물이 이리저리 굽어져 흘러내리는 경치 빼어난 고을이다. ‘대한민국의 산골이 강원도라면 강원도의 산골은 산다삼읍(山多三邑) 영·정·평(寧旌平)’이라는 말도 있듯이 영월은 이웃 정선·평창과 더불어 산세가 험준하고 교통이 불편한 두메산골로 이름났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이런 산간벽지에도 철도가 깔리고 도로가 넓혀진데다가 말끔히 포장되어 이제는 옛날보다 훨씬 찾아가기 쉬운 곳으로 변했다.

고을의 지명이야 ‘편안히 넘어간다’는 뜻의 영월이지만 옛 시인이 읊었듯이 ‘칼 같은 산들이 얹히고설킨’ 험준한 지형지세를 보건대 옛 사람들은 이 고을을 들고 나기에 여간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이곳으로 유배당했다가 끝내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고 쫓지만 한 많은 삶의 막을 내린 소년 왕단종(端宗)도 마찬가지였다. 영월이란 깊고 험준한 산중의 작은 고을이 충절의 고장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까닭도 단종이 비극적 최후를 맞은 슬픈 역사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청령포(淸泚浦)는 시퍼런 강물이 굽이져 흐르며 삼면을 감싸 돌아 반도의 형상을 이루고, 뒤는 깎아 세운 듯 험악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는 창살 없는 천연의 감옥이다. 이렇게 무서운 곳에 갇혀 외로운 귀양살이를 했으니 어린 단종의 하루하루는 피눈물로 얼룩진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서울 쪽 하늘을 바라보며 두고 온 왕비 송씨(宋氏)가 그리워 눈물과 한숨을 지을 때 뗏새도 구슬피 울던 그때 그 사연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강물은 오늘도 쉴 새 없이 흘러오고 또 흘러간다.

그 강이 서강이다. 서강은 오대산 서쪽 산기슭의 물줄기가 평창 사천강이 되고, 다시 흘러 주천강과 합류하여 청령포 앞을 감돌아 내린다. 그리고 영월읍내 끝에서 정선 조양강이 흘러내려온 동강과 어우러져 남한강 상류를 이룬 뒤, 고씨동굴과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온달산성(溫達山城) 앞을 지나 충주호로 흘러 들어간다. 청령포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오면 영월읍 방절리. 강언덕에 1984년 11월에 세운 왕방연시조비(王邦衍時調碑)가 눈길을 끈다.

-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 읊고 /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뻐다. -

왕방연은 세조의 명을 받고 단종에게 사약을 가져온 금부도사였다.

1455년 6월 왕위를 숙부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빼앗긴 단종은 그해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듬해 6월 28일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되어 삼엄한 호송을 받으며 광나루를 건너 뒤 7일 만에 유배지 청령포에 이르렀다.

원손(元孫)이 태어났다고 할아버지 세종대왕(世宗大王)을 그지없이 기쁘게 했던 단종이었다. 세종대왕은 어느 날 저녁 어린 손자를 안고 집현전(集賢殿)에 찾아갔다. 그때 집현전에는 성삼문(成三問)과 신숙주(申叔舟)가 숙직하고 있었다. 대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이 아이를 잘 보살피시오.” 그런데 세종대왕의 뒤를 이은 문종(文宗)은 병약한 체질이였다. 그는 재위 2년 3개월 만인 1452년 5월에 39세의 한창나이로 세상을 뜨고 불과 12세의 어린 철부지 홍위(弘曄)가 조선왕조 제6대 임금으로 즉위하니 그가 단종이다. 이에 앞서 문종은 자기가 일찍 죽을 것을 예감하여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우의정 김종서(金宗瑞) 및 집현전 학사들에게 여러 차례 세자의 뒷일을 당부했다. 마침내 일이 터진 것이 1453년 10월 10일에 일어난 계유정난(癸酉靖難)이다. 수양대군이 선수를 쳐서 일으킨 쿠데타였다.

김종서·황보인 같은 반대파는 물론 강력한 라이벌 안평대군과 이들의 가족까지 모조리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이조판서·병조판서 및 내외 병마도통사를 겸해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그리고 자신의 심복인 정인지(鄭麟趾)를 좌의정, 한확(韓確)을 우의정에 임명했고, 쿠데타의 일등공신인 한명회(韓明會)·권람(權攄)·홍달손(洪達孫)·신숙주 등에게는 공신호와 벼슬을 내렸다.

溫故知新

端宗과 死六臣



황원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권력을 독차지한 수양대군은 그 뒤 1년 반 동안이나 이름뿐인 임금인 어린 단종을 들들 볶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그 이듬해인 1455년 6월에 단종을 상왕(上王)으로 쫓아내고 왕좌를 차지했다.

그러나 단종의 양위를 불법 찬탈로 보고 단종의 복위를 위해 충신들이 들고일어났으니 곧 사육신사건이다. 사육신사건의 주요 인물은 성삼문을 비롯하여

그의 부친이며 도총관이던 성승(成勝), 형조참판 박팽년(朴彭年), 예조참판 하위지(河緯地), 사예 유성원(柳誠源), 동지중추원사 유응부(兪應孚) 등이다. 이들의 거사 예정일은 1456년 6월 경복궁에서 귀국하는 명나라 사신의 환송연이 열리는 날이었다. 성삼문은 무관인 부친과 유응부를 운검(雲劔)으로 추천했다. 운검이란 임금의 뒤에 칼을 들고서 있는 경호원이다. 그런데 무슨 김새를 챘는지 꽤 많은 한명회가 운검을 들이지 말자고 졸랐고, 세조도 동의했다. 조짐이 불길하고 일이 묘하게 어긋나자 성승과 유응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거사하자고 주장했으나 신중한 성삼문과 박팽년 등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라고 했다. 결국 그것이 화근이었다. 거사 동조자 중 김질(金質)이 이를 장인인 정창손에게 밀고했고, 정창손은 이를 세조에게 알렸다. 그렇게 거사 계획이 탄로나 모두 잡혀 들어가 세조의 친국을 당했다. 모두가 잡혀와 갖은 악형을 받았지만 아무도 굴복하지 않았다.

박팽년도 세조를 ‘나으리’라고 불렀으며, 유응부는 아예 ‘당신’이라고 호칭했다. 하위지가 “역적 누명을 씌웠으면 목을 베면 그만이지 이것저것 자꾸 물어서 무엇 하오?”하자 세조도 지쳤는지 고문을 그치게 했다. 이들은 모두 사형선고를 받고 한강변 새남터 형장으로 끌려갔다. 당시 성삼문의 나이 46세. 박팽년은 47세. 하위지는 70세였다.

이개는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증손자로서 수양대군의 쿠데타에 동참한 이계전의 조카였다. 이들 4명과 무관인 유응부는 함께 참수되고 머리는 모두 저자에 효수되었다. 유성원은 성균관에서 이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가 부인과 마지막 술을 나누고 사당에 들어가 자결했다. 곧 이어 들이닥친 군졸들이 그의 시신을 끌어다 사지를 찢었다. 이들이 곧 사육신이다. 이들의 목 없는 시체는 누군가 밤중에 엮어다 노들강변에 매장했는데 그가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인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이라는 설이 있다. 또는 성삼문의 사위인 박임경이 수습하여 노량진에 매장했다고도 한다.

그날부터 무서운 검거 선봉이 불었다. 남자는 모두 죽였고 여자는 모두 종을 만들었다. 특히 사육신 가문의 여성들은 공신들의 여종과 첩으로 나누어 주었다. 생후 1, 2세 된 어린 남자아이는 입안에 소금을 채워 질식사시켰고, 5촌 이상은 귀양을 보냈다. 이 사육신 사건으로 500여 명에서 800여 명이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간 뒤 영월로 유배되어 청령포에 갇혀 있던 단종은 그해 늦여름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처소를 영월읍내 관풍헌(觀風軒)으로 옮겼다.

그러나 그해 세조 3년(1457)에 일어난 금성대군(錦城大君)의 단종복위운동에 노한 세조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 단종에게 사약을 보냈다. 10월 24일 왕방연이 관풍헌에 당도했으나 차마 사약을 강제로 마시게 할 수 없었다. 그때 공명심에 눈먼 하인 복득이란 자가 뒤에서 활시위로 목을 졸라 숨을 끊어버렸다. 그때 단종의 나이 17세였다.

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은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았다. 그때 용기와 의협심을 갖춘 이 고을 호장(戶長) 엄흥도(嚴興道)가 시신을 수습해 동을지산에 모셨는데, 현재 영월읍 서북쪽 3km지점에 위치한 사적 제196호 장릉(莊陵)이다. 이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그로부터 200년이 흐른 숙종 7년(1681). 사육신의 관작이 복구된 데 이어 숙종 24년에는 단종의 복위도 이루어졌다.

비록 실패로 끝난 반정운동(反正運動)이었지만 사육신의 충절사는 왜 사람이 짧게 살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일러준 역사의 교훈이다. 세조의 불의와 폭력에 맞서 곳곳이 싸우다 죽은 이들 사육신의 충절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준다. [4]

회우들이 펴낸 新刊

이향숙 회우 ‘바다의 점이 되어’

이 책은 나와 한국일보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저자의 두 번째 수필집이다. 그는 재직 시절 두 권의 책을 출판했다. 퇴직 후에도 「가곡의 故郷」 수정판을 냈고, 소설을 썼다. 이번에 또 출간한 수필집에서 식지 않는 활발한 열정을 새삼 느낀다. 저자는 서문에서 글쓰기는 삶을 지탱해주는 연인이며, 소울 메이트라고 했다. 이제 노년으로 진입하는 나이에도 왕성한 독서와 영화감

상, 여행, 운동으로 정열적인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느끼고 사색한 흔적들이 이 수필집의 60편 속에 담겨있다.

저자의 성격은 조용하고, 사람 사귀는데 낯가림이 심하고, 남 앞에 나서는 걸 부끄러워하는 편이다. 그러나 직업적인 인터뷰 때는 의외로 날카로운 질문과, 적극적이고 용감한 태도로 대시한다. 제목이 「바다의 점이 되어」라고 한 것은 평상시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



궤적을 보여준다. 재직시절 바쁘게 일하느라 창작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서 못다 한 꿈을 이제야 풀어낸다고 고

다. 망망하고 끝없는 바다에서 보이기도, 알려지지도 않는 작은 먼지에 자신을 비유하면서, 그러나 자유롭게 열심히 살아온

백하고 있다.

이 책은 3부로 나뉘어, 1부 ‘자연과 나의 삶’은 여행과 운동을 즐기면서 느낀 삶의 지혜를, 2부 ‘思索의 章’에서는 삶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을, 3부 ‘彼岸을 향하여’는 인생에 대한 불교적인 관조를 담고 있다.

어느 작품에서나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영화 감상,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떠나는 여행, 그들 속에서 만난 다양한 인간들의 다양한 삶을 끌어내어 보여준다. 그들의 삶속에서 저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노후를 살아가는 지혜를 나직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들려준다. 289쪽, 동강출판사 발행. [4]

에너지절약운동으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아씨가자!” 국민발전소 건설운동에 동참합니다.

아 끼자 '25시' : 피크시간(2시~5시)

씨 (사)랑한다 '26도' : 냉방온도 26°C 이상 유지

가 법다 시원차림, '휘들옷(간편복장) 착용

자 ~뽑자 '플러그' :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자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기간:6.11~9.21)

- 1.에어컨 가동시 출입문 열고 영업 금지
- 2.대형건물 실내온도 26°C준수(판매 시설은 25°C)

※ 7월1일부터 최대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색창에 을 입력하세요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2012 하계절전 시민단체 공동캠페인 협의회



언론가 소식

‘언론재단 50년사’ 발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8월 2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재단 창립 50주년, ‘신문과 방송’ 지령 500호 기념 세미나와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 50년사’를 발간했다.

인터넷 신문의 신뢰 토론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8월 10일 11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에서 ‘인터넷 신문의 신뢰,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동규 교수(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는 인터넷신문 신뢰도 저하 원인으로 포털과 제휴된 인터넷신문의 과도한 트래픽 경쟁과 선정적 광고, 영세한 규모의 인터넷 신문사 난립과 취재윤리시스템 부재를 꼽았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민기 교수(숭실대 언론홍보학과)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광고에 대해 자율적 심의 시스템의 실질적인 가동과 효과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널리즘의 미래 포럼’ 발족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한국 언론의 현

재 상황을 폭 넓게 진단하고 문제점을 추출한 뒤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저널리즘의 미래포럼’을 발족시키고 7월 31일과 8월 8일 회의를 개최했다. 이 포럼은 10여차례 회의를 가진 후 그 내용을 정리해 12월 중 비공개 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다.

신영연구기금 설립 35주년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이사장 문창극)이 9월 10일로 설립 35주년을 맞는다.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은 이날 서울 관훈동 신영기금회관 2층에서 많은 언론인들을 초청해 기념식 행사를 갖는다.

스마트아카데미 개설

관훈클럽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스마트 아카데미’ 강좌를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개설한다. (단 10월 2일은 휴강). 강의 시간은 오후 2~4시며 장소는 한국프레스센터 12층에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컴퓨터 교육실이다.

대한언론인회에 500만원 지원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이사장 문창극)은 지난 8월 본회가 발간중인 ‘대한언론’ 제작비로 500만을 지원했다.

사우회 소식

경향신문

경향신문 사우회는 김명수 회장 취임 후 첫 번째로 편찬위원회를 열고 9월에 발행되는 경향사우회보(47호) 제작에 대해 폭넓은 토의를 가졌다. 편찬위원회에는 맹태균 본회 홍보출판위원장이 고문을 맡고 본회 박석흥 편집위원이 연구위원장을, 이규섭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 이상호 사이버위원장이 사이버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사우회(회장 김광희·본회 회우)는 지난 20일 동우회보(편집인 성낙오·본회 편집위원장) 27호를 발간했다. 타블로이드 16면으로 발행된 이번 회보는 본회 안평선이사의 ‘그때 그 시절 동아방송 남은 이야기’를 비롯, 김광희(‘올림픽 금메달의 상징성’) 박경석(시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라’) 최희조 편집위원(‘선후배간 대화’)등이 좋은 글을 기고해 지면을 빛냈다.

(舊)신아일보

구 신아일보 사우회(직무대행 김철호)는 8월 28일 오전 11시 30분 고 장기봉 사주 4주기를 맞아 사옥 현관에 마련된 고인의 흉상 앞에서 추도식 행사를 가졌다. 아 자리엔 본회 김길홍 이동훈 장기효 장 옥 정운종 홍진태회우 등 20여명의 구 신아일보 전직 사우들이 참석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우회(회장·인보길 본회회우)는 지난 7월 27일자로 사우회보 ‘조우’ 12호를 발간했다. 타블로이드 20면으로 발행된 이 회보에는 1면 머리와 6, 7면에 이도형 본회 회우의 금혼식(결혼 50주년) 소식을 사진과 함께 대서 특필했다. 김

종현 본회 회우가 편집인으로 수고했다.

KBS

KBS 사우회(회장 강대영)는 매월 사우회보를 발행한다. 지난 7월엔 천안함 현충사 방문 소식이 1면 머리기사로 대서특필됐다. 고정란 ‘삶의 단상’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산다’를 비롯 회우들의 기고와 동정 등이 다채롭게 실린다.

CBS

CBS사우회(회장 조춘택)는 7월 25일자로 사우회보 19호(타블로이드 4면)를 발간했다. 봄야유회 소식을 머리기사로 취급한 이달 사보엔 CBS 이재천 사장 연임, 오재경 전 CBS운영이사장 별세 소식과 김동길 박사의 조사 등이 실렸다.

SBS

SBS 사우회(회장 임형두)는 지난 7월 1일자로 사우회보 23호를 발간. 활기치는 협찬기금 조성 소식을 머리기사로 싣고 SBS사우회의 단합된 모습을 과시했다. 이밖에 각종 동호회와 야유회 소식을 실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사우회(회장 김충한)는 7월 25일자로 한우회보 제7호를 발간했다. 타블로이드 8면으로 발행한 이 회보는 한국일보 지령 20,000호 돌파 소식을 머리기사로 싣고 고 조동표 원로 회우를 추모하는 이태영 본회 부회장의 조사, 김성우 전 한국일보 고문의 글 ‘왜 나는 문학인이 아닌가’, 정홍택 회우의 근황 등이 실렸다. 2면엔 김윤재(구명 건이) 회우의 장가계 여행기도 보이고 정일화 회우의 ‘나의 특파원 시절’과 3면 동우회(사진부)소식이 비중 있게 실려 있다.

인천상륙작전 재연·국군의 날 행사
참전 언론인·본회 임원진 참관

국방부는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 및 인천상륙작전 재연 행사와 64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6·25 참전언론인을 포함 대한언론인회 임원진을 다수 초청했다. 대한언론인회 창립 이래 정부행사에 6·25 참전언론인 등 원로 언론인들이 초청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국방부 행사 주요 내용이다.

1)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 - 인천 독도함 비행갑판 - 개식사 → 참전국 국기 입장 → 참전용사 입장(신설) → 국민의례 → 헌화·묵념(신설, 조포 19발) → 참전용사 소개 → 전황보고(5전단장) → 회고사(함명수 7대 총장) → 기념사(참모총장) → 환영사(인천시장) → 폐식사 순·식후행사 : 인천시립합창단 공연

2) 인천상륙작전 재연 : 월미도 근해

- 대잠작전(2 LYNX) - 소해작전(2 MSH/MHC) - 특수작전(UH-60, 6IBS·RIB) - 화력지원(함정 및 공군전술기) - 해상돌격(12 KAAV, 3 LSF) 및 공중돌격(UH-1H) - 후속돌격(3 LST, 6 KAAV)

3) 건군 제64주년 국군의 날
○-일시 : 2012. 9. 26(수) 10:30
○-장소 : 계룡대 대연병장
○-세부 행사 계획
식전행사 (09:40~10:30) : 군악대 파르, 기념공연, 군가합창 등
본행사 (10:30~11:20) : 국민의례, 훈장 수여, 대통령 기념사 등
식후행사 (11:20~11:55) : 고공강하, 특공무술, 축하비행 등
기타 : 무기/장비 전시, 유해발굴유품 전시, 병영훈련 체험 등

실록-언론, 언론인의 길
그때 그현장 제2집 출판

대한언론인회는 퇴직 언론인들이 재직 중에 겪은 보람과 아쉬움 등 생생한 증언들을 모아, 책으로 엮어 언론사료로 영구 보존코자 지난해에 이어 ‘언론 언론인의 길(2) 그때 그 시절 못다 한 이야기’를 발간한다. 한국언론진



흥재단 후원으로 발간할 이 책에 실릴 필자는 기 회고록 집필자와 대한언론 ‘실버 파이팅’, 관훈저널 ‘미니회고록’ 집필자와 정계 진출자를 제외한 만 70세 이상 본회 회우 중 집필 희망신청자 50명이다.

이 시대 참 언론인을 찾습니다 2012 대한언론상 공모

대한언론인회는 언론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2012년도 대한언론상 수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심사대상은 일간신문, 통신 방송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보도, 논평 및 언론학술 연구분야로 합니다. (수상자와 시상식 날짜는 10월 1일자 회보에 발표)

응모 요령

- 분야 : 1) 기획취재 보도 분야
2) 논설 논평, 언론학술 연구분야
- 대상 : 일간신문 통신 방송 등 언론사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
- 공적기간 :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

- 구비서류 : (개인) *이력서 *사진 2장(명함판) *세부 공적내용(A-4용지 2페이지 이내로 작성)·1부 *소속단체장 추천서(A-4용지 1페이지 이내로 작성)1부 (단체) 단체장 추천서 1부 *공적 자료 및 관련 사진 첨부
- 접수마감 : 2012년 9월 20일 오후 5시

- 시상일 : 추후 통보
- 접수처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우100-745) 전화 02)732-4797~8, 02)2001-7621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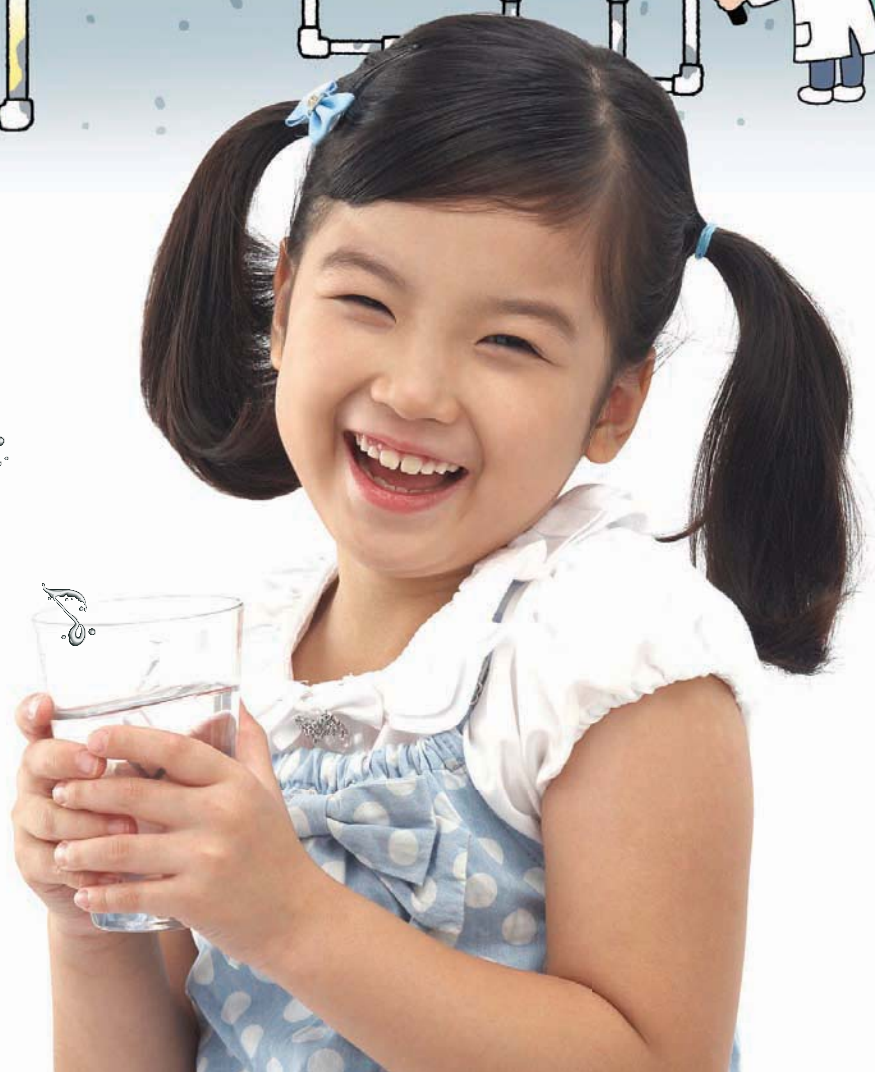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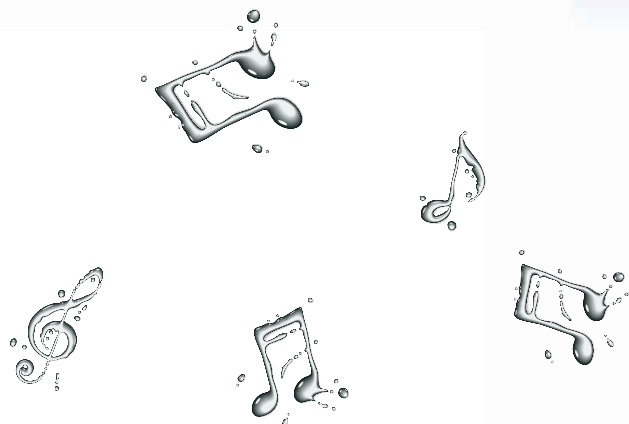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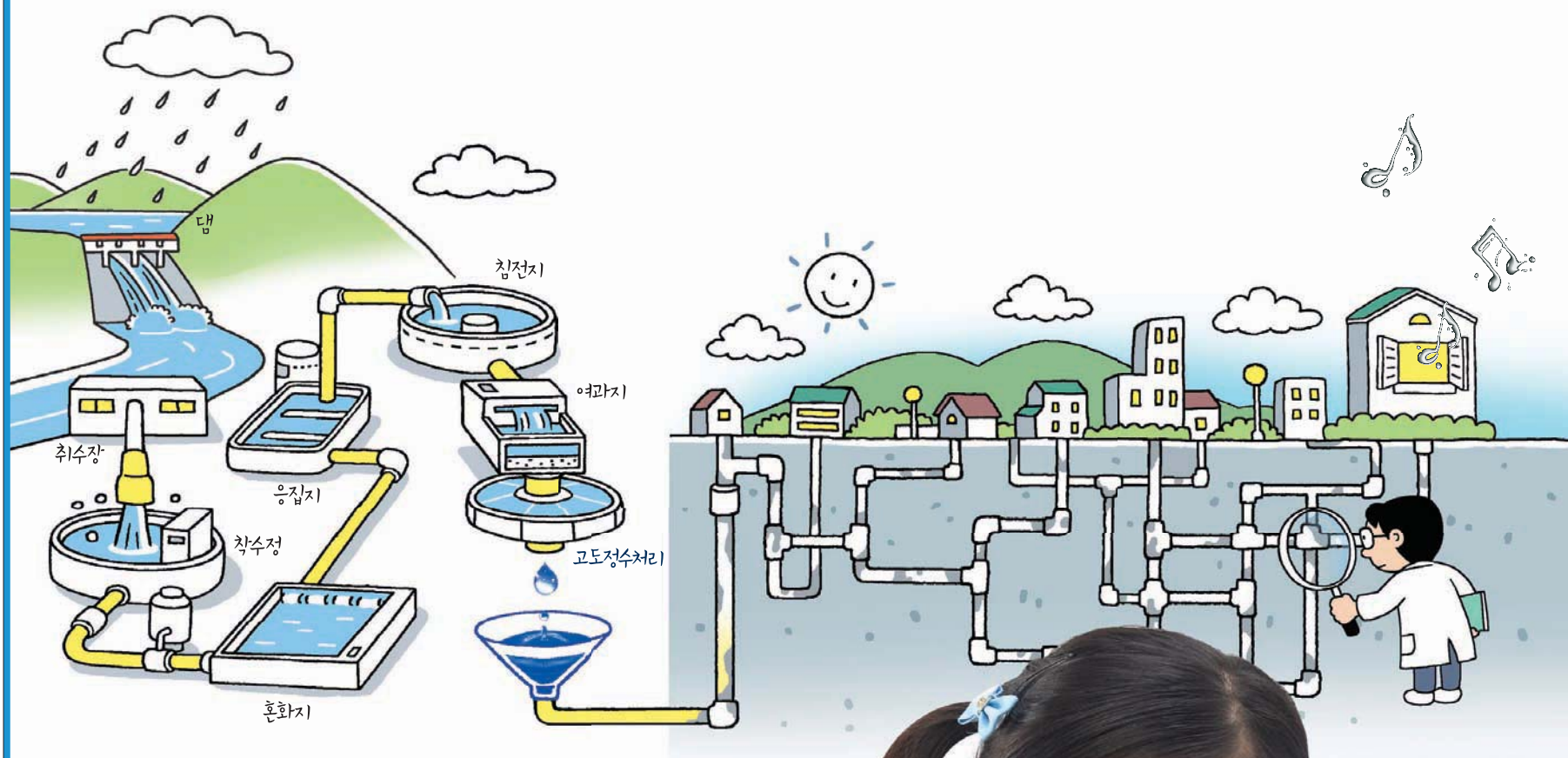
2%! 대한민국 수돗물 신뢰지수?

간간하게 정수처리된 안전한 물, 수돗물

그러나 수돗물 직접 음용율 2%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수질오염, 녹조, 노후관 등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누구나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 나라, K-water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⑦

알츠하이머 치매예방법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가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알츠하이머. 독일 신경과의사 알츠하이머의 이름을 딴 이 병은 신경세포가 죽어서 대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의 뇌회(腦回)가 위축되거나 줄어드는 퇴행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실, 치매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알츠하이머 치매도 노화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노화를 촉진하는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에게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과체중, 흡연, 과음,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부족 등 심

장병 발생위험 요인과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위험 요인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한 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고혈압, 과체중, 고콜레스테롤값 등 세 가지 인자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치매 발생률이 2배 높아지며 셋 다를 가지고 있으면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이 6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 동안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과 관련된 연구들 중 생활습관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정리 해보면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고 야채와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 근심걱정이 적은 낙천적인 사람,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 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소식을 하는 사람에게서 치매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성 뇌질환으로 지금까지 원인을 잘 알지 못했다. 왜 생기는지를 모르니 예방은 물론 치료방법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기억력만 조금 쇠퇴해도 내가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졌다. 그러나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도 그 윤곽이 잡혀가고 있고 예방의 길이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끈끈한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beta amyloid)라는 단백질이 뇌세포 안팎에 덩어리(plaque)로 침착, 뇌세포를 파괴함으로써 뇌세포 기능을 마비시켜 생기는 병이라는 것이었다.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뇌세포 대사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 물질은 특수 유전자(Insulin/GF-1) 활동으로 제거되어 뇌세포 손상을 막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노화가 되면 제거 능력이 떨어져 독성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뇌세포 기능이 상

건강포럼 9월8일 개강

이상만씨 ‘노인의 고집’ 강의

폭염으로 7, 8월 두 달간 여름휴가에 들어갔던 ‘토요건강포럼’이 오는 8일 토요일 개강한다.

이번 강의는 ‘노인(老人)의 고집(固執), 과연 불통(不通)만일까?’로 현재 성균관유도회 교육원장이며 중앙문화연구소 이사장인 이상만 씨(사진)가 강의한다.

이상만 원장은 “기술혁신과 아울러 신세대들이 빠른 속도로 등장함으로써 50, 60대가 일자리를 잃고 중노인이 되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고집(固執)은 빛을 잃고 퇴색해 가며, 따라서 불통(不通)의 잔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이 원장은 “우리 노인은 분발해야 한다. 사고방식을 바꾸거나 생활방식을 개선하여 소위 실버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을 재확인하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원장은 “꺼져가는 성냥불도 마지막엔 밝은 빛을 낸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理致)다. 사람으로서 노년을 밝게



이상만 원장

산다는 것은 마치 천명과 같은 것이라며 만세의 사표(師表)인 공자는 70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모질지 않게 행동한다는 말씀이다.

바로 사람으로서 최고의 경지인 어질게 살면서 현상세계의 선악과 의

(義)와 불의(不義)에 휘둘리지 않고 대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만일 이러한 마음과 행동을 할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소통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노인의 아름다운 품위를 유지해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 원장은 어느 설문조사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족이 아니다”라고 다수가 응답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 점에서 우리 노인들은 자각해야 한다. 가족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 진정 산송장이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자식을 우리가 호래자식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 노인들이 분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9월 토요건강포럼이 우리 자신

윤종보 회우 별세

윤종보 회우가 지병으로 8월 23일 별세했다. 고인은 1945년 7월 9일 경남 거창 출생으로 거창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 신아일보 사회부기자로 언론계에 진출했다.

1980년 MBC 사회부기자로 옮겨서 사회부장, 정치부장, 부국장 겸 북한부장, 보도국 편집담당



고 윤종보 회우.

부국장, 국장급 해설위원, 안동 MBC 사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활동으로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검찰청 부설 민주이념연구소 자문위원, 방송위원회 방송위원 등의 경력과 2006년부터 광고대행 및 여행사인 명보애드넷(주) 회장과 구 신아일보 사우회 회장직을 맡아왔다. [4]

弔辭

왜 그리 환하게 웃으십니까

윤종보 선배를 보내며

라일락 향기 그윽한 5월 어느 날 시청 옆 그의 사무실에 들렀다. 긴장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내심 당황했다. 안 좋은 소식을 접하고 처음 얼굴 대하는 날이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변에서 더 난리야. 식구들은 더 난리고...대학병원에선 우선 약물치료를 해 보재” “저녁약속?”

이 수첩 봐, 점심-저녁-점심-저녁... 계속이야. 당신은 저 말이야.” 언제 차례 올지도 몰라. 우리는 웃었다. 즐거운 얘기 끝에 웃는 것처럼 그렇게 웃었다.

“내가 내일 모레 죽는 줄 알고 가기 전에 밥 한 그릇 사준다고해서 스케줄이 꽉 찼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이야. 허허허” 우리는 더 크게 확 웃었다. 취장암 3기 진단인데도 이렇게 말했다. 그 뒤에 자주 보았어도 애써 숨기지도 않았고 평상심을 잃지도 않았다. ‘취장암 3기, 최장 3개월’이란 속설 같은 정설을 모를리 없건만 그는 끝까지 이처럼 초연했다.

그래, 그래서 꽃 같은 나이에 가시면서도 그처럼 환하게 웃어 보이시는 겁니까? 사진 속 웃는 당신의 모습 대하고 만감 속에 저도 허탈하게 덩달아 웃었지요. 당신은 대인이십니다. 참말로 큰 분이십니다. 당신을 아는 선후배들은 당신을 ‘인맥사전, 족보학의 거성 그리고 마당발’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학교는 어디 출신이고, 고향은 어디며 어디 어디 성씨인데 어디를 거쳐 이 자리에 왔고, 누구하고 친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이다 까지를 거침없이 풀어놓았지요. 그 많은 정계와 관계, 사회 인사들과의 폭넓은 교류가 당신에게 ‘마당발’이라는 훈장을 달아줬고요.

모두가 ‘이 시대의 수첩’ 하나가 사라졌다고 애통해합니다. 그의 범조계 기사는 특종에 특종으로 언론계에 한 획을 그었고 신문 1면과 TV화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신아일보 검찰



고 윤종보 회우 빈소.

출입기자, MBC 청와대출입기자, 정치부장, 선거기획단장, 안동MBC사장 그리고 방송위원회 위원으로 근 40년을 언론계서 생을 불태웠고 이후엔 명보국제항공 회장, 글로벌파이낸스포럼회장, 국회잡지 동행회장, 동행정치학 아카데미 이사장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그가 얼마 전 “이젠 집에서 쉬고 싶어. 회사 나오기도 싫어”라며 마음 한 자락을 보여줬다. 병마의 그림자를 느껴서였을까?

이별을 위한 통과의례도 없이 훌쩍 떠나시니 감당하기 힘듭니다.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천수를 다 했다면 몰라도 꽃다운 나이에 떠나시면서도 왜 그리 환하게 웃으십니까. 밍습니다.

“어제 같이 왔던 툴 좋은 친구 누구야? 우리 견습 기자야, 그 친구 다방에서 형사과장하고 커피 마시고 있던 데... 물건이네” 선배가 전한 동대문 경찰서 수습기자 시절 얘기 한 토막이다. 그때 벌써 대기자의 싸수(?)가 보였다고 덧붙인다. “수석으로 들어와서 수석으로 졸업했지요. 나이 많은 나하고도 잘 지내고요..” 천안공원 묘지에서 본 그 보다 다섯 살이나 많은 경남 거창고교 동기생은 명석하고 대인관계가 좋았다고 회고했다.

2012년 8월 26일 하늘아래 편안한 곳, 따뜻한 남쪽을 내려다보며 그는 자연으로 돌아갔다. 흠 한 줌 그의 가슴에 뿌렸다. 당신은 가셨지만 우리는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당신을 묻어두고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4]

한 박 무

(전 MBC부국장·언론중재위원)

을 돌아보는 한편 가족과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 토요건강포럼은 을지로1가역(명동입구) 외환은행 맞은

편 이윤수 비뇨기와 홀에서 8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 [4]

이보길 건강포럼 간사記

AM 11:00
보험금 상담

PM 2:30
서류 접수완료

PM 5:36
보험금 지급완료

• (무) 삼성리빙케어보험에 가입한 후,
암수술보험금을 지급받으신
서울시 김00 고객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삼성생명 고객사랑 지급서비스

새롭고 혁신적인 보험금 지급서비스, 삼성생명이 먼저 시작합니다
보험금 신청은 더 간편하게, 지급은 더 빠르게!
고객이 어려울 때 힘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의 중심은 고객입니다

아! 빠르다

고객을 위해 더 간편하게, 더 빨리 드리겠습니다

- ✓ 보험금 신청 당일 지급확대
- ✓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자금 필요 시
사망보험금 즉시 지급
(D+1일 이내, 일반사망 보험금 3천만원 한도,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름)
- ✓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 1577-4118 신설
- ✓ 보험금 청구서류 대폭 간소화
- ✓ 보험금 처리상황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안내

보험금 상담전화 | 1577-4118

삼성생명

SAMSUNG

회우동정

가나다순

대한뉴스 주간으로



김윤재(전 세계일보 수석 논설위원)회우= 지난 3년 동안 계속해 온 월간 '시사스케치' 발행을 중단하고 월간 '대한뉴스' 주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6회 포니정 혁신상 수여



김진현(포니정 재단이사장·전 동아일보 상무이사)회우=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1층 포니정 홀에서 제6회 포니정 혁신상을 수여.

국제인쇄산업대전(KIPES 2012) 개최



김충한(한국이앤엑스 회장)회우= (주)한국이앤엑스 주최로 제19회 인쇄산업대전(KIPES 2012)이 2012년 9월 5일(수)부터 8일(토)까지 일산 KINTEX 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인쇄, 그 영역을 넘어...'라는 주제로 22개국 225개사가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는 인쇄산업 전문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전화 02-551-0102)

'예술적 감성의 리더십' 주제 특강



김 화(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본회 전문위원= 8월 22일 을왕리 해수욕장 골든 스카이 호텔 리조트에서 열린 한국영화배우협회 하계 수련회에서 '예술적 감

성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특강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언론재단 세미나 기조 발제



남시육(세종대 석좌교수) 본회 논설위원= 8월 20일 오후 4시 프레스클럽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 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시대 기자는 누구인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경제풍월 창간13주년



배병후(경제풍월 대표)회우= 8월29일 오후5시30분 코리아하우스 서화당에서 창간1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제5시집 '불심의 노래' 출판



유한준(전 소년조선 취재부장)회우= 6월 25일 유한준 제5시집 '불심의 노래' (도서출판 고글·값 12,000원)를 출판했다.

연세대 문과대 동창회장에



정구종(전 동아닷컴 대표)회우= 지난 7월 16일 연세대 문과대 동창회 2012년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언론발전 기여 공로로 공로패 받아



박기병(6·25 참전언론인회 회장)이사= 지난 8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 창립 48주년 기념식에서 언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박기병 본회 이사는 1958년 대한통신 기사를 시작으로 국제신문, 부산일보 기사를 거쳐 한국기자협회 10대, 17대 회장, 춘천 MBC 사장, 강원민방 사장 등을 역임했다.

8순, 금훈, 18번째 출판 3점 경사 잔치



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회우= 지난 6월 17일 일요일 저녁 미 8군 용산 여관(Dragon Hill Lodge) 식당에서 이도형 회우의 8순, 금훈과 최근 출판한 '망국과 흥국' 출판 기념 만찬이 있었다. 이회우의 1남 3녀가 마련한 이 자리엔 백선엽 장군 등 50여명의 인사가 초청됐다.

'KBS와 나' 기고



이현균(전 경향신문 이사 편집국장)본회 편집고문= KBS 2011 연차 보고서 책자에 K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KBS와 나' '국민은 KBS를 믿는다' 제하의 글을 기고,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이사장



정홍택(전 한국일보 출판국장)본회 자문위원= 지난 8월 6일 열린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이사회에서 제5대 이사장으로 선임. 정홍택 이사장은 현재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 2012' 조직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예장' 남선교회에서 공로상 받아



제재형(본회 고문)회우= 8월 22일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선교회 창립 88주년 기념 전국대회에서 지난 30여년간 남선교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광복절 청와대 오찬 초청받아



조성국(전 코리아헤럴드 편집위원)원로회우= 지난 8월 15일 12시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청와대 오찬에 초청받았다.

'병무' 지에 명사칼럼 기고



홍원기회장= 병무청(청장 김일생)발간 '병무'지 2012년 여름호에 '공정 병역은 안보의 기초' 제하의 권두 칼럼을 기고. 홍 회장은 '명사칼럼'으로 소개된 이 칼럼에서 특별히 '호국 보훈'과 '공정 병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혜복 고문, 본회에 200만원 특별 찬조

이혜복 본회 고문이 지난 8월 16일 부인 방봉세 여사와 함께 본회를 방문하고 후원기회자에게 대한언론인회를 위해 유용하게 써 달라며 찬조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이혜복 고문

이혜복 고문은 이날 찬조금을 전달하면서 "저의 평전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본회 기우회 9월 20일 분기모임

대한언론인회 기우회(회장 정기정)는 오는 9월20일(목) 오후 2시 종로3가 국일관 뒤편 바둑세계기원에서 분기 모임을 갖습니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8월의

더위를 이겨낸 회원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김윤석 총무:010-2880-0474

주소·전화번호 변경

김태선 회우= 010-3756-6849

안종우 자문위원= 경기 의정부시 신곡2동 동아아파트 104동 802호(우480-747)

전민조= 010-2296-4014

정성진 회우=서울 구로구 천왕동 이펠 하우스 1단지 106동201호
010-6234-6092

저서 보내주신 분

유한준 회우= 제5시집 '불심의 노래' (2012년·도서출판 고글)

이향숙 회우= 수필집 '바다의 점이 되어' (2012년·도서출판 동강)

본회 홈페이지 개선 추진키로

대한언론인회 사이버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본회 사무실에서 금년들어 첫 회의를 갖고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호 사이버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엔 한양인 사이버위원회 간사(전 서울신문 교열부장) 김수남(전 소년동아 부장) 유용현(전 국민일보 부국장), 장 옥(전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부장)회우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본회 홈페이지 재휴회사인 이젤디자인(ED) 프로젝트

팀장을 합석시켜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과 오류 등 개선책을 모색하고 홈페이지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사용중인 콘텐츠를 확대시켜 회원들의 참여도를 넓히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글을 올리기를 원하는 회우는 대한언론인회 홈페이지에서 아래 ID와 패스워드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

ID : kjcmember 패스워드 : kjc1405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가나다순·괄호안 납입연도)

구자건(530,000원 장효상(12)

입회비 포함) 전신병(12)

김종현(13) 정재도(12)

김은구(13) 조덕연(12)

김성수(12)

원종선(530,000원

입회비 포함)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아홉 번째 이야기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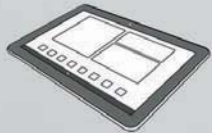
사람이 미래다



HOW TO WORK
SMART

삼성전자

SAMSUNG



스마트시대의복합기 삼성이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스마트PC, 스마트TV 모든 것이 스마트한 시대-
삼성의 원천기술로 만들어진 스마트 복합기 A3를 소개합니다



국내 최초 A3 컬러복합기 자체개발
복합기 기술독립

Real 1200dpi 해상도
선명한 리얼컬러

듀얼코어 CPU
빠른 처리 속도

All-in-one 일체형 보드
탁월한 경제성

컴팩트 디자인
사무공간 절약

CLX-9201NA/9251NA/9301NA(20/25/30 PPM)

삼성 스마트 복합기 A3

구입 및 임대 관련
문의처

서울 삼성네오정보(주) 02-711-7025 (주)삼성MNS 02-521-5879 **경기/고양** 삼성비즈니스솔루션 1544-3316 **경기/수원** (주)루맨 1588-6351 **인천/경기** (주)삼성DPS 032-432-8878 **강원** 강원솔루션 033-813-4545
대구/경북 삼성디엠에프 1588-8685 **부산** (주)삼성비에스 051-851-9350 **울산/제주** 삼성DMFP총판(주) 052-266-0074 **경남/경원** 삼성디지털센터 055-265-1144 **광주/전남** (주)유아이티 062-652-2007
전북/전주 (주)삼성씨앤티 063-229-2296 **대전/충북** (주)하나아이티 042-524-4456 **충남/천안** (주)에스코 041-557-0022

삼성전자 B2B/특판 구매상담 1588-3536
삼성전자 B2B 서비스문의 1588-3773
www.samsungb2b.co.kr